

연구보고 R439 / 2002. 12

# 중국의 농산물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       |       |
|-------|-------|
| 전 창 곤 | 연구위원  |
| 조 명 기 | 부연구위원 |
| 정 정 길 | 부연구위원 |

## 연구담당

|       |       |             |
|-------|-------|-------------|
| 전 창 곤 | 연구 위원 | 제1, 4~6장 집필 |
| 조 명 기 | 부연구위원 | 제3장 집필      |
| 정 정 길 | 부연구위원 | 제2장 집필      |

## 머 리 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화 정책 추진 이후 농산물 유통체계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산지와 소비지에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시장과 유통시설이 건설되고 각종 상인이 출현하여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원화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도매시장(批發市場)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한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2001년 12월 중국의 WTO가입으로 향후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중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향후 국제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농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 중국 농산물 유통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나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중국의 농산물시장과 유통체계에 관련된 후속 연구와 대 중국 농산물 유통 및 수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과정에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200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 요 약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화 정책 추진과 함께 농산물 유통정책과 관련 제도도 빠르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농산물시장과 유통시설이 산지와 소비지에 건설되면서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효율성, 거래제도, 유통시설 등의 측면에서는 낙후되고, 물류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2001년 중국의 WTO가입으로 향후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중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 중국 농산물 유통 및 수출정책 수립을 위해서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자료의 수집·정리·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 생산·유통·수출 분야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농산물의 전반적인 유통체계와 가장 선진적인 상해시 농산물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 중국 농산물 유통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 2.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 실태 및 전망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는 현재 유통주체 및 유통기구의 다양화, 유통경로의 다원화, 유통업체의 다양화, 상이한 유통조직과 각종 시장

의 공존 등으로 전환기적인 복잡한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은 상호 작용하여 보완과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산물 유통체계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산지에서는 다양한 상인과 상인조직이 출현하고 있으며, 산지수집상과 같은 다양한 중간상인의 유통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다. 산지유통시설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낙후되어 그 기능이 매우 미흡하지만, 소비지의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소비지의 경우 도매유통체계는 각종 도매시장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규범적인 시장질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기능은 거래 위주의 상적 기능으로 효율적인 물류기능은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정보의 흐름이나 교류가 지역간·시장간에 폐쇄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매시장 재정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도매시장의 시설보완, 재배치 등과 함께 도매시장 건설·운영에 대한 규범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도매유통체계가 점진적으로 효율화되고 있다.

소매유통체계의 경우 중국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문이다. 개혁개방화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 유통업체의 중국시장 진출과 함께 다양한 업태의 소매기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신업태는 전통적인 소매기구와는 달리 선별·포장화된 농산물을 취급하고 거래방법에서 산지와 직접 계약을 통한 구매 등으로 현재 산지 및 소비지 유통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산물 물류는 수확 후 처리기술의 낙후성, 물류시설 부족 등으로 물류효율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확 후 산지에서 원형농산물 형태로 소비지로 반출되고 있어 산지의 상품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산지 상인조직들을 중심으로 저장시설과 가공시설 및 상품화시설이 운영

되고 있어 소비지 소매유통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있다. 향후 이들 조직의 산지 상품화 시설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산지포장센터, 도매시장, 집무시장 및 신유통업태를 축으로 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시장정보, 품질표준체계, 검사체계 등이 빠르게 확립되고, 시장정보 서비스망도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지역 중심의 시장망과 유통체계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상해시 농산물 유통체계 및 전망

상해시 농산물 유통체계는 현재 전통적인 유통체계와 현대화된 유통체계가 공존하면서 전통적인 유통체계가 선진 유통체계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전환기적 과정에 있다. 상해시의 경우 유통기구의 다양화와 분화, 유통경로의 다원화 등에서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산지유통체계는 산지수집·반출상 회사인 경기인 조직이 실질적인 유통주체이며, 생산자의 유통참여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들 경기인 조직(회사)들이 현재 산지유통 기능을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유통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전업농가 중심의 생산자의 임의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산지유통 주체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협동조합 형태가 아닌 경기인 조직과 일부 전업농 중심의 생산자 임의조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단계의 경우 현재 상해시 도매시장은 거래기능 외 다른 기능은 매우 미약하며, 거래방법, 결제 시스템, 시장정보, 물류기능, 조성기능 등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상해시 도매시장 수는 약 330개소이며, 이 중 청과물 도매시장이 50여 개소로 시장이 난립하여 효율적 유통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해시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5개소의 중앙도매시장과 20개소의 산지도매시장을 축으로 하는 유통체계 개선의 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상해시 도매시장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상해시 농산물 유통체계는 현대화된 도매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물류센터 등이 보완적 유통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 단계의 경우 재래시장인 집무시장 중심에서 현대적 유통기구인 슈퍼마켓, 할인점, 대형초시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매유통은 대형 슈퍼마켓(할인점 포함)과 현대화된 집무시장이 중심적 유통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시사점

첫째, 중국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현대화된 선진 유통체계로 진입하는 데는 향후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의 발전 격차는 동부연안 대도시의 경우 10년 내외, 내륙 지역은 15년 내외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구조 발전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과의 발전격차 기간을 중국농산물과 철저히 차별화하는 준비기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소비자가 있고 소비계층별 농산물 소비성향과 구매패턴이 매우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특정 소비계층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하여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중국농산물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고품질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중국은 중앙정부와 함께 많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유통체계 및 시장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및 시설개선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에서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한국의 참여 및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은 1970년대 후반 실용주의의 등장에 따라 1979년부터 개혁개방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농산물은 중국 농산물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농업과 농산물 유통에 대한 품목별,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    | 1 |
| 2. 연구목적 .....       | 2 |
| 3. 주요 연구내용 .....    | 3 |
| 4. 연구 범위 및 방법 ..... | 3 |
| 5. 기대효과 .....       | 4 |

### 제2장 중국 농업구조와 유통정책 변화

|                            |    |
|----------------------------|----|
| 1. 중국 농업구조 변화 .....        | 5  |
| 2. 중국 농업 여건 및 농산물 생산 ..... | 8  |
| 3. 중국 농업 및 유통정책의 변화 .....  | 17 |

### 제3장 중국의 농산물시장

|                         |    |
|-------------------------|----|
| 1. 농산물시장 및 유통체계 .....   | 26 |
| 2.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 현황 ..... | 33 |

### 제4장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                          |    |
|--------------------------|----|
| 1. 유통환경의 변화와 유통다원화 ..... | 38 |
| 2. 산지의 생산 및 유통체계 .....   | 41 |
| 3. 소비지 도매유통체계 .....      | 48 |
| 4. 소매유통체계 .....          | 61 |

## 제5장 상해시 청과물 유통체계

|                          |    |
|--------------------------|----|
| 1. 상해시 청과물 유통체계 재편 ..... | 68 |
| 2. 상해시 청과물 도매유통 .....    | 76 |
| 3. 상해시 청과물 소매유통 .....    | 90 |
| 4. 상해시 청과물 산지유통 .....    | 99 |

## 제6장 요약 및 결론

|                            |     |
|----------------------------|-----|
| 1.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 및 전망 .....  | 107 |
| 2. 상해시 농산물 유통체계 및 전망 ..... | 110 |
| 3. 시사점 .....               | 112 |

|            |     |
|------------|-----|
| 참고문헌 ..... | 116 |
|------------|-----|

## 표 차례

### 제2장

|                                   |    |
|-----------------------------------|----|
| 표 2-1. 개혁개방 이전 농업 부문 구조 .....     | 5  |
| 표 2-2. 개혁개방 이후 농업구조 변화 .....      | 8  |
| 표 2-3. 중국의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중 .....     | 8  |
| 표 2-4.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 .....    | 10 |
| 표 2-5. 중국의 주요 과일류 생산량 추이 .....    | 12 |
| 표 2-6. 중국의 주요 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 | 13 |
| 표 2-7. 중국의 농산물 무역 .....           | 16 |
| 표 2-8. 중국 농업정책의 시대적 변화 .....      | 19 |
| 표 2-9. 중국의 상품유통체계 및 정책 변화 .....   | 21 |

### 제3장

|                                         |    |
|-----------------------------------------|----|
| 표 3-1. 소유 형태별 소매상업기구, 직원 및 소매 매출액 ..... | 27 |
| 표 3-2. 농산물 유별 적용 유통제도 .....             | 28 |

### 제4장

|                                         |    |
|-----------------------------------------|----|
| 표 4-1. 부류별 중국의 농수축산물 주요 도매시장 .....      | 51 |
| 표 4-2. 중국의 집무시장(자유시장) 현황 .....          | 62 |
| 표 4-3. 중국 주요 중외합작 소매유통기업 현황, 2001 ..... | 66 |
| 표 4-4. 중국 소매업 체인산업 현황 .....             | 67 |

### 제5장

|                                          |    |
|------------------------------------------|----|
| 표 5-1.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체제하의 상해시 유통체계 비교 ..... | 70 |
| 표 5-2. 상해시 채소 소매거래량과 집무시장 소매량 .....      | 88 |

## 그 립 차 례

### 제3장

|                                |    |
|--------------------------------|----|
| 그림 3-1.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와 시장 ..... | 34 |
|--------------------------------|----|

### 제4장

|                                          |    |
|------------------------------------------|----|
| 그림 4-1. 중국의 일반적인 채소 유통경로 .....           | 58 |
| 그림 4-2. 산지(수광시)와 대도시 소비지간 청과물 유통경로 ..... | 58 |

### 제5장

|                                       |    |
|---------------------------------------|----|
| 그림 5-1. 상해시 청과물 유통경로, 1990년대 중반 ..... | 74 |
| 그림 5-2. 상해시 청과물 유통경로 현황, 2002 .....   | 75 |
| 그림 5-3. 上海市 蔬菜公司 조직기구도 .....          | 77 |
| 그림 5-4. 상해시 채소공사 경유 야채유통 개요 .....     | 80 |
| 그림 5-5. 상해시 집시무역시장의 유통구조 .....        | 93 |
| 그림 5-6. 陝北소매그룹의 상품 매입선과 판매선 .....     | 95 |

## 제 1 장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화 정책 추진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산물 유통정책과 관련 제도도 빠르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농산물시장과 유통시설이 산지와 소비지에 건설되고, 각종 상인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여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원화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농산물 도매시장(批發市場)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효율성, 유통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거래제도, 상품화 및 유통조성 등의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흡하며, 시설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특히 산지와 소비지에 농산물 물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물류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종 농산물 시장 건설 등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농산물의 국내시장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2001년 12월 WTO가입으로 향후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중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의 대 중국 농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중국의 농산물시장과 유통체계에 관련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 중국 농산물 유통, 수출 및 경쟁력 제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 중국 농산물 유통 및 수출정책 수립을 위해서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자료의 수집·정리 및 분석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 우리나라 농업생산·유통·수출 분야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농산물의 유통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 중국 농산물 유통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정책, 유통실태, 유통체계 변화 및 전망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동시에 개혁·개방화 이후 중국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소득수준이 높으며, 농산물 유통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해시 유통체계를 중심으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 3.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 개혁개방화 전후의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의 농업 여건 및 농산물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 및 유통정책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혁개방화 전후 중국의 농산물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혁개방화 이후의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유통다원화 현상을 살펴보고 유통단계별로 산지의 생산 및 유통체계, 소비지 도매유통체계, 소매유통체계의 실태와 특징을 검토·분석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상해시를 중심으로 상해시 청과물 유통체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여기에는 상해시의 청과물 유통체계의 개혁개방화 전후 비교·분석과 재편 현황, 상해시 청과물 도매유통체계의 현황과 특성, 청과물 소매유통체계 현황과 변화, 산지 유통체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 4. 연구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 범위

연구 범위는 전반적인 중국의 농산물 유통 실태와 유통체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동시에 중국에서 농산물 유통체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상해시 유통체계를 청과물

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나. 연구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를 각종 문헌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관련 자료는 대부분 중국 농산물 유통정책, 농산물시장 관련 자료 등이다.

그리고 상해시 농산물 도매·소매 유통체계와 인근 산지유통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실태조사에서는 상해시 농산물 공급권인 근교산지를 방문하여 산지유통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산지수집상, 반출상, 가공업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 등을 면담하고 유통 실태에 대해 토의하였다. 특히 상해시 도매시장(지역, 광역, 국가급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인 집시무역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인 초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유통현황과 실태 등에 대한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함께 상해농업과학원 등 관련 전문기관 등을 방문하여 유통 전문가와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와 전망 등에 대한 한·중간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상해농업과학원과의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상해시 근교 농산물 유통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 5. 기대효과

개혁·개방화 이후 다원화, 복잡화되고 있는 중국 및 상해시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농산물 유통 및 수출정책 수립과 중국의 농산물 유통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장

# 중국 농업구조와 유통정책 변화

## 1. 중국 농업구조 변화

### 가. 개혁개방 이전 농업구조

중국의 농업은 内蒙古, 新疆, 西藏 등 소수민족 거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재배업을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중국 건국 이후 토지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생산 및 소유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은 크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농업은 1953년 제1차 5개년계획 이후 1979년 개혁개방까지 공업화를 위한 잉여자본, 식량, 원자재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농촌이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농촌의 잉여소득이 농촌과 농업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중국은 농업을 재배업, 목축업, 임업, 어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개혁개방 전에는 식량작물 위주의 재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재배업의 비중은 건국 후 개혁개방까지 26년 동안 6.9%포인트 감소

표 2-1. 개혁개방 이전 농업 부문 구조

단위: %

| 구 분  | 1952   | 1965   | 1978   |
|------|--------|--------|--------|
| 재배업  | 86.9   | 81.0   | 80.0   |
| 식량작물 | <89.2> | <86.8> | <85.5> |
| 경제작물 | < 9.0> | < 8.9> | <10.2> |
| 기타작물 | < 1.8> | < 4.3> | < 4.3> |
| 목축업  | 12.0   | 15.0   | 15.0   |
| 임  업 | 0.7    | 2.2    | 3.4    |
| 어  업 | 0.4    | 1.8    | 1.7    |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1.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2000년 현재 식량작물은 벼 31.2%, 밀 26.4%, 옥수수 18.1%로 세 가지 작물이 전체의 75.7%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서류 10.8%, 대두 6.6%, 조 3.8%, 수수 3.1% 등 주로 밭작물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1>.

축산업은 부업적으로 경영되는 양돈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개혁개방까지 축산물 생산은 돼지고기의 비중이 전체의 약 95% 내외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혁개방 전까지의 이 같은 농업구조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농업생산성 향상도 진전되지 않아 농산물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 나. 개혁개방 이후 농업구조

중국은 1976년 모택동 사망 후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개혁파가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 후 1978년 12월 공산당 제11기 제3회 전회에서 덩소평의 개혁파가 ‘대내에는 개혁, 대외에는 개방’이라는 개혁개방정책을 공식으로 채택함에 따라 농업 부문에도 개혁개방화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

14기 제3회 전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공식 선포함으로써 대외개방을 통하여 농산물의 유통시장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3년 인민공사를 철폐하고 개별농가 경영청부제(家庭承包制經營)를 도입하였다. 이 후 농업 부문의 균형발전과 농촌의 비농업 부문도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다. 그 결과 약 2억 호의 가족경영 형태의 개별 농가가 출현되었으며, 농업생산량은 1978년 약 3억 톤에서 2000년 약 5억 톤으로 급증하였다. 개별농가 경영청부제가 도입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萬元戶’라고 불리는 전업농 또는 기업농 형태의 농가도 등장하였다. ‘萬元戶’란 농사를 지어서 인민폐萬元이라는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라는 의미로 개별농가 경영청부제 도입이후 농가책임 경영으로 전환되면서 나온 용어이다. 농업생산 구조는 식량 부문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하는 다각경영으로 전환하였으며, 농촌의 상품경제화가 빠르게 추진되었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는 농업생산을 다각화하고 농촌의 상품경제를 촉진하는 발전전략을 중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식량작물 위주의 농업구조가 농업·임업·목축업·어업·부업 등의 균형적인 복합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재배업 비중이 급감하고, 축산업, 수산업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재배업에서도 식량작물의 비중이 감소하고 경제작물 비중이 증가되었다. 재배업 비중은 1978년 80.0%에서 1998년 56.2%로 감소하였으며, 식량작물의 경우 이 기간 중 80.3%에서 73.1%로 감소하였다. 경제작물은 10.2%에서 22.4%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촌에서 2차산업이 발저나면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1978년 85%에서 1998년에는 60%로 감소하였으며, 비농업소득 비중이 15%에서 40%로 급증하였다<표 2-2>.

표 2-2. 개혁개방 이후 농업구조 변화

단위: %

| 연도   | 농림수산업 |     |      |     | 재배업부문 |      |     |
|------|-------|-----|------|-----|-------|------|-----|
|      | 재배업   | 임업  | 목축업  | 어업  | 식량작물  | 경제작물 | 기타  |
| 1978 | 80.0  | 3.4 | 15.0 | 1.6 | 80.3  | 10.2 | 4.3 |
| 1990 | 64.7  | 4.3 | 25.7 | 5.4 | 76.5  | 14.4 | 9.1 |
| 1998 | 56.2  | 3.4 | 30.8 | 9.6 | 73.1  | 22.4 | 4.5 |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1.

## 2. 중국 농업 여건 및 농산물 생산

### 가. 농업여건

중국은 1990년대에도 개혁개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1차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000년 말 현재 1차, 2차, 3차 비중은 각각 15.9%, 50.9%, 33.2%로 나타나고 있다<표 2-3>.

표 2-3. 중국의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중

| 구 분  | 1978 | 1990 | 1995 | 1999 | 2000 |
|------|------|------|------|------|------|
| 1차산업 | 28.1 | 27.1 | 20.5 | 17.6 | 15.9 |
| 2차산업 | 48.2 | 41.6 | 48.8 | 49.4 | 50.9 |
| 제조업  | 44.3 | 37.0 | 42.3 | 42.8 | 44.3 |
| 3차산업 | 23.7 | 31.3 | 30.7 | 33.0 | 33.2 |
| 유통업  | 7.3  | 7.7  | 8.4  | 8.4  | 8.2  |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1.

중국의 농업인구는 2000년 현재 922백만 명으로 전체인구 1,266백만 명 중 922백만 명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호수는 23,811만호(1999)이며, 전체 경지면적은 130,039.2천ha(1999)로서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0.55ha로 매우 영세하다.

중국의 농업지역은 크게 화북동북전작농업구(華北東北田作農業區), 동남답작농업구(東南畝作農業區), 서북내륙농업구(西北內陸農業區)로 구분된다. 화북동북전작농업구는 소맥, 대두, 쌀, 잡곡, 면화, 땅콩, 온대과일이 주작목이다. 여기에는 동북3성과 내몽고 동북부를 포함하는 동북농업구, 내몽고·장성농업구, 황하농업구, 황토고원구 등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2년 3모작 또는 1년 1모작 지역으로 전작농업 위주이다. 동남답작농업구는 농업생산수준이 가장 높은 지구로서 쌀, 면화, 유채, 땅콩, 차 등이 주작목이며, 장강중하류구, 서남농업구, 화남농업구 등이 포함된다. 인구가 밀집해 있고 기후가 양호하여 중국 전체 농업인구의 60%, 경지면적의 40%, 쌀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북내륙농업구는 청장고원 북부 신장지역과 감숙성, 영하성, 내몽고 서부지역으로 밀, 면화, 포도가 주작목이다. 건조하고 일조량이 많아 작물생육에 매우 불리한 지역이다.

## 나. 농산물 생산현황

1979년 개혁개방화 이후 개별농가 경영청부제를 도입하고, 1983년 인민공사제도가 폐지되면서 농업의 상업화가 급진전되었다. 현재 약 2억여 호에 달하는 가족경영 형태의 농가가 개별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데, 인민공사의 집단경영에서 이러한 개별경영제로 바뀌면서 농업생산성이 급증하였다. 개혁개방 이전 인민공사제하에서는 식량과 면화생산을 위해 토지이용을 제한되하였으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제작물 생산이 급증, ‘萬元戶’로 불리는 전업농 형태도 등장하였다.

농업생산의 증가에 개별 경영의 부활과 함께 1979년 이후 실시된

농산물 구매가격제도 개혁 등의 요인도 작용하였다. 농산물 구매가격을 전보다 20% 이상하고 부과된 의무생산량을 생산하여 그 초과분을 판매할 경우에는 국가수매가격보다 50% 이상 일시불로 추가 지불하여 농가의 증산의욕을 고취시켰다. 생산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품목은 과일류, 땅콩, 사탕수수, 대두, 소맥, 옥수수 등이었다 <표 2-4>.

부류별 생산현황을 보면 먼저, 식량작물 중 벼는 재배면적으로는 식량작물 총재배면적의 약 28%를, 생산량으로는 식량작물 생산량의 41%를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물로서 호남성, 강소성, 광둥성, 호북성, 강서성, 사천성, 안휘성, 강서성, 절강성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벼 품종은 장립종(인디카 타입)에서 중단립종(자포니카 타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소맥은 미곡 다음 작물로 생산량은 약 1억 톤이며, 하남성, 산둥성, 강소성, 하북성, 안휘성이 주산지이다. 세

표 2-4.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만톤

| 구 분   | 1978   | 1980   | 1985   | 1990   | 1995   | 1999   | 2000   | 증가율(%)<br>(1980~2000) |
|-------|--------|--------|--------|--------|--------|--------|--------|-----------------------|
| 곡 물 류 | 30,477 | 32,056 | 37,911 | 44,624 | 46,677 | 50,839 | 46,218 | 44.2                  |
| 미곡    | 13,693 | 13,991 | 16,857 | 18,933 | 18,522 | 19,848 | 18,791 | 34.3                  |
| 소맥    | 5,384  | 5,521  | 8,581  | 9,823  | 10,196 | 11,388 | 9,964  | 80.5                  |
| 옥수수   | 5,595  | 6,260  | 6,383  | 9,682  | 11,197 | 12,808 | 10,600 | 69.3                  |
| 대두    | 757    | 794    | 1,050  | 1,100  | 1,788  | 1,894  | 2,010  | 153.1                 |
| 감자고구마 | 3,174  | 2,873  | 2,604  | 2,743  | 3,212  | 3,641  | 3,685  | 28.3                  |
| 면 화   | 217    | 271    | 415    | 451    | 477    | 383    | 442    | 63.2                  |
| 땅 콩   | 238    | 360    | 666    | 637    | 1,023  | 1,264  | 1,444  | 301.1                 |
| 사탕수수  | 2,112  | 2,281  | 5,155  | 5,762  | 6,542  | 7,470  | 6,628  | 190.6                 |
| 사탕무우  | 270    | 631    | 892    | 1,453  | 1,398  | 864    | 807    | 28.0                  |
| 과 실 류 | 657    | 679    | 1,164  | 1,874  | 4,215  | 6,238  | 6,225  | 816.8                 |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1.

번째 중요 작물인 옥수수는 길림성, 산둥성, 흑룡강성, 하남성, 하북성이 주산지이며, 두류는 흑룡강성, 안휘성, 내몽고성, 산둥성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서류는 산둥성, 사천성, 안휘성, 하남성, 광둥성, 중경, 호북성, 호남성, 하북성 등이 주산지이다.

과일류는 개혁개방화 이후 생산량과 생산성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부류로 중국 상업농 전개 및 시장경제화의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전체 과일 재배면적은 867만ha(2000)로 세계의 18%, 생산량은 6,225만 톤(2000)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과일 생산국이다. 과일류는 개혁개방화 이후 농업에서 가장 빠른 성장산업으로 1978년 대비 생산지수는 식량작물은 200인데 비해 과일류는 1,00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979년 개혁개방화 계획으로 농가 생산책임제가 실시되고 1980년대 상품 판매 및 시장가격의 자율화되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중심 품목으로는 사과, 배, 감귤류, 복숭아, 유도 등이며 주로 신선 과일로 소비된다. 기타 품목은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품종도 단순하고 품질 면에서 저급품의 비중이 높아 수입과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과일류는 신선도, 품질, 외관, 안전도 등에서 국내외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과일은 전체 생산량의 약 10%에 불과하며, 특히 수출기준에 적합한 상품은 5%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공에 적합한 품종이 적고 가공기술이 낙후되어 가공비중은 전체생산량의 5~10%으로 매우 낮다(사과 5%, 배 5%, 포도 20%). 과일 수출량은 총 생산량의 약 1%, 세계교역량의 약 2%에 불과(2000년 사과 약 28만 톤, 배 15만 톤 정도 수출)한 수준이다. 수확 후 상품화 처리기술의 낙후와 관련 시설의 부족으로 수확 후 완전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비중은 총생산량의 약 1%에 불과하다. 개별 농가의 과일류의 판매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산지 유통업자와 중간상인의 출현으로 과일판매처는 산지시장 직접판매와 산지상인(기업) 판매의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품목은 사과, 감귤, 배가 주종 과일이다. 2000년도 전체 과일류의 지역별 생산비중은 산동성 14.8%, 하북성 10.3%, 광둥성 10.0%, 섬서성 7.9%, 광서성 6.5%, 복건성 6.3% 순이다. 사과는 전체 과일생산량의 33%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생산국이다. 주요 산지는 산동성(30.9%), 섬서성(19.2%), 하북성(9.0%), 산서성(8.4%), 요령성(7.1%)이며, 품종은 후지가 가장 대표적인 보급품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감귤은 전체 과일 생산량의 14.1% 차지하며 브라질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주요 산지는 절강성(19.7%), 복건성(14.7%), 호남성(13.9%), 사천성(10.8%), 광서성(9.8%), 광둥성(7.8%) 등이다. 배는 전체 과일 생산량의 13.5% 차지하며 세계 1위 생산국이다. 배의 주산지는 하북성(32.4%), 산동성(11.1%), 호북성(7.0%), 안휘성(6.4%), 섬서성, 요령성 등이다<표 2-5>.

채소류의 전체 재배면적은 1,600만ha(2.4억 畝)로 세계 재배면적의 약 35% 정도이며, 생산량은 4.45억 톤(2001)으로 추정된다. 채소 재배

표 2-5. 중국의 주요 과일류 생산량 추이

단위: 만톤

| 구 분 | 1978 | 1980 | 1985  | 1990  | 1995  | 1999  | 2000  |
|-----|------|------|-------|-------|-------|-------|-------|
| 사과  | 228  | 236  | 361   | 432   | 1,401 | 2,080 | 2,043 |
| 감귤  | 38   | 71   | 181   | 486   | 823   | 1,079 | 878   |
| 배   | 152  | 147  | 214   | 235   | 494   | 774   | 841   |
| 포도  | 10   | 11   | 36    | 86    | 174   | 271   | 328   |
| 바나나 | 9    | 6    | 63    | 146   | 313   | 419   | 494   |
| 계   | 657  | 679  | 1,164 | 1,874 | 4,215 | 6,238 | 6,225 |

자료: 『중국통계연감』, 2001.

면적은 총경지면적의 약 9% 수준이며, 특히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양념 채소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채소류는 크게 시설채소와 노지채소로 구분되며, 현재 시설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으며, 생산·공급도 계절성을 벗어나 주년화 추세이다. 주산지는 산둥성, 해남성, 광둥성, 호북성, 강소성 등지이며, 5대 산지의 재배면적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둥성이 가장 큰 주산지로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전국의 12%와 16%를 차지하고 있다<표 2-6>.

채소 재배농가의 90% 정도가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개별영농 형태이며, 농가당 재배규모는 0.1~0.2ha 정도의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나머지 10%는 집단소유제 경영 형태로 계획경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채소류는 과일류와 함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기술 수준의 상대적 낙후성에 따른 저품질 위주의 생산체계, 농약오염 등 안전성 문제발생, 낮은 가공율 및 저장수준, 수확 후 처리기술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고급품 생산 비율이 전

표 2-6. 중국의 주요 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 품목  | 재배면적(천ha) |       |       | 생산량(만톤) |       |       |
|-----|-----------|-------|-------|---------|-------|-------|
|     | 1997      | 1998  | 1999  | 1997    | 1998  | 1999  |
| 배추  | 1,736     | 1,830 | 2,021 | 7,933   | 8,071 | 8,430 |
| 무   | 1,032     | 1,088 | 1,128 | 3,316   | 3,306 | 3,736 |
| 오이  | 894       | 934   | 1,066 | 3,222   | 3,481 | 3,319 |
| 대파  | 434       | 442   | 530   | 1,418   | 1,332 | 1,724 |
| 토마토 | 786       | 848   | 931   | 2,888   | 3,155 | 3,353 |
| 가지  | 652       | 694   | 689   | 2,118   | 2,261 | 2,215 |
| 고추  | 1,092     | 1,122 | 1,251 | 2,522   | 2,566 | 2,715 |
| 양파  | -         | -     | -     | 1,004   | 1,087 | 1,129 |

자료: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통계자료』, 중국농업출판사, 2000.11.

체의 30% 미만 수준이며, 저장율은 20%, 가공율이 5% 미만으로 추정되며, 수확 후 선별·포장·등급화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소의 생산·판매 주체는 개혁개방이전에는 국유채소공사인 집단생산조직이 담당하였으나 이후 소규모의 개별 영세농으로 전환되다. 다양한 형태의 중간상인이 출현하여 채소의 수집·운송·판매 등의 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개혁개방화 이후 소득증대에 따라 국민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기농산물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저농약·무농약·환경친화적 농산물과 같은 채소류의 생산과 유통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생산된 채소는 대부분 산지의 소시장이나 산지도매시장에 재배농민이 직접 출하하거나, 산지수집상에게 판매하고 있다. 산동성의 경우 1990년대 이후 500여 개소의 채소도매시장이 건설되었으며, 이 중 7개소의 대규모 도매시장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시장이다. 산동성 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채소류는 연간 3,500만 톤 이상이며, 이중 가장 큰 채소도매시장인 수광도매시장의 연간거래액은 약 30억 원(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로 영양보건형 채소(주로 양채류), 향신료의 생산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편의성 가공제품(죽, 스프 등)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설채소 재배지는 벼와 목화의 재배지가 전환된 것이 많다. 1981년 7,200ha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약 100만ha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시설재배면적의 50% 이상에 해당된다. 시설(하우스)면적은 산동성, 하북성, 하남성, 요령성 순으로 4개 지역이 전국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산동성은 중국 전체 시설재배 면적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재배 형태는 터널, 간이하우스, 겨울 가온하우스, 비닐하우스 등으로 다양하며, 북위 34~43도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보급에 의한 채소 주년재배가 실현되고 있다.

시설하우스 형태는 무가온 비닐하우스(大棚; 한쪽 벽을 흙담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리온실을 포함한 현대화된 자동화 온실은 대부분 단동 형태로 약 200ha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나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래식 온실인 흙담하우스는 골조식 비닐 온실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화 온실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농업부의 2002년 시설재배 목표는 전체 재배면적의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재배에서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도입된 자동화 유리온실은 아직 광범위하게 보급·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로 성·시단위로 시범농장 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소류의 수확 후 관리는 과일류와 같이 인식이 미흡하고 관련 시설이 부족하여 선별·등급화·포장화·브랜드화 등이 미흡한 실정이며, 대부분의 물류 기능이 인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다. 농산물 무역

최근 중국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대부분의 농산물 무역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육류(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곡류(쌀, 옥수수, 대두, 땅콩), 과일류(사과, 오렌지 등)가 대표적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쌀, 옥수수, 식물성식용유, 밀, 밀가루, 설탕, 배합사료 등이다. 특히 쌀과 옥수수는 수출이 많으며, 소맥과 대두는 수입이 많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지금까지 국내 소비 후 잉여분을 수출하였으나, 수출품목이 비교적 단순하고 수출물량이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은 과일, 채소 등에 대한 수출기지를 조성하는 등 원예상품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어 향후 농산물 무역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무역규모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

(1980(27.8%)→1990(14.9%)→ 1999(8.0%)에 있다. 한편 농산물 무역에서 청과류의 비중은 전체의 약 15% 내외 수준이나 증가추세에 있다. 농산물 수출시장은 주로 아시아지역으로 75% 정도를 차지하며, 한국은 일본과 홍콩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 지역은 대체로 산둥성, 광둥성, 절강성, 복건성, 요령성 등 중국의 동부 연안과 동북부 지역이다. 농산물 수입은 북미지역 30%, 아시아지역 20%, 남미 18%, 유럽 16% 순이다.

한·중간 농산물 교역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주로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곡류, 두류, 채소류 등 원료농산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과일류의 경우 중국이 식물검역상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수출이 규제되고 있다.

중국 농산물 수출의 장애요인은 농촌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농업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이나 위생 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농산물은 수확 후 처리기술이 낙후되고 상품화 시설이 미흡하여 고부가가치화와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출단가가

표 2-7. 중국의 농산물 무역

단위: 천달러, %

| 부 류        | 수 출       |           |                | 수 입     |         |             |
|------------|-----------|-----------|----------------|---------|---------|-------------|
|            | 1999      | 2000      | 한국비중           | 1999    | 2000    | 한국비중        |
| 채소류        | 1,520,732 | 1,544,583 | 87,886 (5.7)   | 83,265  | 81,810  | 63 (0.1)    |
| 과일류        | 425,522   | 417,277   | 8,630 (2.1)    | 257,964 | 368,413 | 1,930 (0.5) |
| 곡물류        | 1,134,757 | 1,638,855 | 637,060 (38.9) | 497,048 | 574,065 | -           |
| 화훼류<br>산수목 | 31,018    | 31,831    | 1,471 (4.6)    | 16,822  | 20,696  | 1,736 (8.4)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농산물무역핸드북』, 2001.

상대적으로 낮아서 일본 등의 수출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중·저급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채소류는 신선채소와 건조채소 형태로, 과일류는 통조림 형태로 대부분 수출된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마늘의 경우 1만 톤 이상을 저장·가공할 수 있는 저온창고 및 가공공장을 주산지별로 1~2개소씩 건설·운영하고 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채소류의 상당 부분은 산동성의 대규모 채소단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최근 수출농산물의 표준화와 상품화시설의 확충으로 상품성이 제고되고 고부가가치화와 브랜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 3. 중국 농업 및 유통정책의 변화

#### 가. 농업 및 유통정책 변화

##### 1) 농업정책의 변화

중국의 경제정책과 농업정책은 건국 이후 공산당의 경제 및 농업에 대한 정책노선과 1953년부터 시작된 순차별 5개년 계획에 따라 시대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건국 이후 1952년까지는 경제부흥기이다. 1950년의 국가재정 및 경제 통일정책을 수립과 토지개혁은 1978년까지 농업의 생산 및 분배의 기초적인 틀이 되었다.

1953년부터 시작된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시설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농장화를 추진하였으며, 1958~1960년간의 대약진 운동 기간에는 인민공사의 조직화를 통해 농민의 조직화와 함께 소유와 생산의 집단화를 강화하였다.

1961~1965년간의 경제조정기에는 대약진운동의 이념을 포기하고 농업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투자를 확대하였다. 1961년부터 4년 동안 시작된 문화 대혁명기에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발전에 모택동 급진주의의 이념적·사상적 측면을 강조한 시기였다.

1970~1975년간 경제 재조정기였는데 이때 200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농업현대화 실현을 위한 10개년 경제발전계획이 수립·발표되었다. 그리고 10개년 계획기의 전반기(1976~1980, 5·5계획)에는 등소평 등 개혁파가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원칙을 공식 표방하였으며, 산업구조의 불균형 개선과 서방 기술·자본의 도입을 위하여 1979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하였다. 그 후 7차5개년 계획(1986~1990, 7·5계획)기간에는 개혁·개방화의 가속화와 함께 각종 시장건설 등과 같은 농업 및 유통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였다. 농업 부문의 개혁·개방화가 가속되어 시장경제 지향적인 본격적인 상업농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8차5개년 계획(1991~1995, 8.5계획) 기간에는 개혁·개방화의 가속화와 함께 농업생산 부문의 개혁과 유통 부문의 개방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그리고 9차5개년 계획(1996~2000, 9.5계획) 기간에는 중국의 동서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농업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서부지역 대개발이 시작되고, 농업 부문에 대한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을 더욱 강조하였다<표 2-8>.

## 2) 농산물 유통정책의 변화

건국 후 약 10년간(1947~1957)은 중국의 농산물 유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시기였다. 건국초기 경제는 국영경제, 합작경제, 국가자본주의경제, 개인자본주의경제, 농민 및 수공업개체경제 등 다원적 자본주의 형태로서 유통구조도 국영상업, 합작상업, 국가자본주의상업, 민영자본주의상업의 복합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1953년 제1차 5개년계획 수립 시 각종 공·민영상업을 공사합영 및 합작상

점의 합작소조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1956년 개인상업의 협동상점과 소조의 조직화, 농업의 협동농장화로 국가 공영상업이 전체 상업의 99.9%를 점유함으로써 주도적 위치로 자리 잡고, 집체상업과 개체상업이 보조적 또는 보충적 지위로 전락되었다.

표 2-8. 중국 농업정책의 시대적 변화

| 구 분        | 기 간                   | 주요 추진정책 내용                                                                     |
|------------|-----------------------|--------------------------------------------------------------------------------|
| 경제부흥기      | 1949~1952             | • 국가재건 및 경제통일정책 수립(1950), 토지개혁 실시                                              |
| 제1차5개년 계획  | 1953~1957             | • 주요 산업 및 시설 국유화, 농업의 집단농장화                                                    |
| 대약진 운동기    | 1958~1960             | • 농업의 인민공사 조직으로 소유와 생산의 집단화 강화                                                 |
| 경제조정기      | 1961~1965             | • 농업투자 확대와 농업발전의 중요성 강조                                                        |
| 문화대혁명기     | 1966~1969             | •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제건설에 이념적·사상적 강조                                                   |
| 경제 재조정기    | 1970~1975             | • 2000년까지 농업 현대화를 위한 10개년 장기경제발전계획 수립·발표(1975)                                 |
| 10개년계획 전반기 | 1976~1980<br>(5·5계획)  | • 등소평 개혁과 제11기 3中全會에서 개혁·개방원칙 채택 공식표방<br>• 1979년 개혁·개방 경제개혁 단행(개혁·개방정책 시작)     |
| 10개년계획 후반기 | 1981~1985<br>(6·5계획)  | • 전산업 분야 개혁개방확대와 외자도입 및 대외 경제교류 확대                                             |
| 제7차5개년 계획  | 1986~1990<br>(7·5계획)  | • 농업 부문 인프라 구축 확대(각종 시장건설 확대)                                                  |
| 제8차5개년 계획  | 1991~1995<br>(8·5계획)  | • 개혁·개방화 가속화, 농업 부문 및 유통 시장 개방화 추진                                             |
| 제9차5개년 계획  | 1996~2000<br>(9·5계획)  | • 동서간 소득, 발전 격차 축소 및 서부지역 대개발<br>• 국영기업 개혁,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 강화                  |
| 제10차5개년 계획 | 2001~2005<br>(10·5계획) | • 2005년 산업구조(1,2,3차) 각각 13%, 51%, 36% 달성<br>• 농촌주민 취업기회 확대, 생활수준 개선, 생태환경보호 강화 |

그 후 개혁·개방화가 시작된 1978년까지 20년간(1958~1978)은 유통구조의 국영독점화 시기였다. 이 기간에는 농산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업체계가 유일한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로 통합되고 개체 및 집체상업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농촌 지역 시장인 ‘鄉鎮集市貿易市場’은 폐쇄되고 국영상업과 國營 供銷合作商業(國營 供給販賣合作社)이 유통활동을 독점하였다.

1978년 12월 개혁·개방 정책의 결정으로 농산물의 상품화와 가격 개혁으로 국내시장 유통구조 개혁 시작되어 농산물 유통구조도 본격적인 개혁기(1979~1985)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기간에는 상품유통에서 소유제 구조조정으로 집체 및 개체상업의 재등장하였다. 1953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식량, 식용유, 면화 등에 대한 국가 통일관리체제(統購統銷) 실시와 일용공산품에 대한 통일구매 및 위탁판매제도(統購包銷)가 개혁되었다. 1983년에는 식량에 대해 국영상업 외에 供銷社나 농민 개별적으로 식량거래 허용하였다. 1984년에는 면화의 통일구매제를 취소하고, 1985년에는 식량의 통일구매제 폐지와 합의계약구매제로의 전환 및 과일·채소·돼지고기·계란시장의 개방과 독점경영체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1985년에는 식량과 식용유의 證票供給制 외의 기타 농산물에 대한 공급제한을 완전히 해제하였다. 1984년 상무부 산하기업에 대한 경영·재무·인사 등에 대한 직무분리가 추진되어 정부와 기업이 분리됨에 따라 기업의 자주권이 확대되었다. 동시에 상업기업의 경영·관리체제의 확립으로 중·대형 국영소매기업에 대한 경영계약책임제 실시 및 소형 국영소매기업에 대한 改·轉·造 정책이 실시되었다. 1984년 국무원은 상품시장 육성을 위해 주요도시에 貿易中心을 건립하고 상품 도매체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표 2-9>.

유통구조 개혁기 이후 약 2년간(1986~1988)은 상업체제개혁의 탐

표 2-9. 중국의 상품유통체계 및 정책 변화

| 구 분                | 기 간       | 주요 내용                                                                                                                                                                                                                                                                                              |
|--------------------|-----------|----------------------------------------------------------------------------------------------------------------------------------------------------------------------------------------------------------------------------------------------------------------------------------------------------|
| 유통구조 공유화기          | 1949~195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사업, 합작사업, 국가 및 사영자본주의 상어 등 복합형태</li> <li>• 1953 공·사영사업의 공사합영 및 합작상점의 합작소조 방식</li> <li>• 1956년 국가공영사업이 주도적 위치 차지(99.9%)</li> </ul>                                                                                                                       |
| 유통구조 국영독점기         | 1958~19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체 및 집체사업의 완전 해체, 사회주의 공유제로 통합</li> <li>• 농촌 鄉鎮集市貿易市場 폐쇄, 국영사업 독점</li> </ul>                                                                                                                                                                              |
| 유통구조 개혁기           | 1979~19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혁·개방정책 결정, 농산물 상품화와 가격개혁</li> <li>• 집체 및 개체사업의 재등장과 비중 급증</li> <li>• 1953년 일용공산품에 대한 통일구매 및 위탁판매제 개혁</li> <li>• 1983년 식량 개별거래 허용, '84 면화·'85 식량 통일구매제 폐지</li> <li>• 1985년 청과물, 축산물 시장개방과 독점경영체제 폐지</li> <li>• 1984년 국영기업과 정부의 분리 및 경영계약책임제 실시</li> </ul> |
| 체제개혁 탐색기           | 1986~19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업 분야 개혁개방 확산과 상거래 혼란(인플레이션, 매점매식, 가격조작)으로 상업체제 개혁계획 확정('88.5)</li> <li>• 1988~'95 개혁 심화단계, 1996~'00 개혁 완성단계 설정</li> </ul>                                                                                                                               |
| 治理整頓政策하<br>유통구조개혁기 | 1989~199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난 해결을 위한 治理整頓政策(안정화정책) 채택('88.9)</li> <li>• 난립 개체·집체기업 정리와 시장관리 강화로 투기단속</li> </ul>                                                                                                                                                                     |
| 유통시장 개방과<br>외국투자허용 | 1992~2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자본과의 합작·합자를 통한 선진 경영기법 도입과 유통시설 현대화 유도</li> <li>• '92년부터 외국인 투자와 급속한 유통시장 개방화 추진</li> <li>• 유통시장 개방화 확대 및 모든 산업분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화</li> </ul>                                                                                                               |

색기라고 할 수 있다. 급격한 개혁·개방이 모든 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극심한 인플레이션, 민간의 매점매석 행위, 가격조작 등 상거래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업체제 개혁계획을 1988년 5월에 확정하였다. 이때 탐색단계를 거쳐 1988년부터 1995년까지를 상업체제 개혁의 심화단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개혁의 완성단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1988년 9월에는 경제난국 해결을 위해 안정화정책인 治理整頓政策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출 억제와 산업 및 생산구조 조정, 난립된 개체·집체기업 정리, 시장관리 강화로 투기·투매행위 단속 등을 추진하였으나 국내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90년대는 농산물을 비롯한 유통시장 개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유통시장 개방화 시기(1992~2000)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외국자본과의 합작·합자를 통한 현대적 경영기법의 도입과 유통시설 현대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1992년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점진적인 외국인 투자와 유통시장 개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유통시장 개방화 확대 및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이 급속히 강화된 시기였다.

## 나. 농업 및 유통정책의 변화 전망

중국은 고질적인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의 해소, 시장경제체제의 가속화 및 WTO가입에 따라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WTO협상을 적극 추진하던 1996년 이후 식량생산이 5억 톤 이상으로 유지되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다. 일부 품목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진입하였다.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연평균 50,485 톤에 달하였으며, 1998년에는 51,230만 톤까지 상승하였다.

2001년 9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143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본격적인 국제화시대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농업 부문을 새로운 단계의 농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생산구조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생산구조의 전략적조정의 핵심은 우량품종개발과 품질향상, 상품화 기능확대, 유통효율성 증대, 시장조절기능의 확대 등이다.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WTO회원국의 요구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농업 및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농산물 품종의 우량화를 통한 품질향상이다. 이는 재배업뿐만 아니라 목축업, 수산업, 임업, 과일 등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농산물 시장에서 소비자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소비성향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자 중앙정부는 2000년부터 조기 매벼, 동북지역의 봄밀, 남방의 겨울밀 등 판매가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 수매를 중단함으로써 수요가 없는 품목은 도태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생산의 비교우위와 시장수요에 따라 농업의 지역적 분포를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부 연해지역과 중대형 도시 지역은 식량생산을 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목축업, 수산업 및 원예류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주요 식량 생산지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어 지역별로 상호 보완적인 농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농업을 발전하도록 장려한다.

셋째, 원료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단순한 원료농산물 대신 다양한 가공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가공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 농산물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농산물의 시장정보체계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 시장정보 체계는 전국적인 통일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시장정보의 수집·분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혁을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현재 산지나 소비지의 유통 및 물류시설의 부족과 낙후로 농산물의 유통 중 감모와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산지 유통시설의 부족과 수확 후 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지 고부가가치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통 효율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산지에는 저온창고 등의 산지 유통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있으며, 소비지 도매시장의 시설보완 및 신규개설과 통폐합 등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

여섯째,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표준체계를 조속히 수립하고 검사와 측정 수단을 완비하는 것이다. 역시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소비조건을 충족시키고 더욱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일곱째, WTO 체제요구에 부합되는 농업지원과 보호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WTO 가입이후 급속한 국제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농업 생산 및 유통정책을 WTO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신규제정·수정·보완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무역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품질규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여덟째, 농업경영체제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산업화 경영체제의

발전으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농민” 형태의 농업 산업화(일체화) 경영체제를 발전시켜 농민들의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시장진입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향진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체제의 혁신을 지원하며, 중소규모 도시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잉여노동력의 비농업 분야 이전과 재촌 농민들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제 3 장

# 중국의 농산물시장

### 1. 농산물시장 및 유통체계

#### 가. 계획경제 체제하의 유통체계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의 농산물시장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수요와 공업화를 위한 생산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소비재로서 양곡, 면화, 기름, 고기, 채소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1987년 중국 소비자 기구의 평균 엔겔계수는 65로 국민의 기초식량을 공급하는 농산물시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정에 가장 중요한 산업정책 대상이었다. 또한 공업원료 공급원으로서 농업부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86년 경공업 총생산액 중 농산물을 원료로 한 생산액이 약 70%에 이르고 있다.

계획경제하에서 통제되었던 농산물 시장과 유통 시스템은 개혁개방이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소유관계가 공유제로 전환

되고 담당주체는 국영상업기구의 독점 상태로 유지되면서 供銷合作社와 같은 집단소유제의 합작상점은 보조적 유통기구로 전락되었다. 또한 농촌의 집시무역시장은 사회주의적 상업유통의 보완기구로 전락되었다<표 3-1>.

중국은 건국 후 농산물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자 1953년부터 1955년까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매할당제를 실행하였는데 이것이 농산물 유통체계의 기본골격이 되었다. 그리고 농산물을 1류, 2류, 3류로 구분하여 각각 통일수매, 할당수매, 협의수매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이 제도는 개혁·개방화까지 약 30년간 지속하였다.

표 3-1. 소유 형태별 소매상업기구, 직원 및 소매 매출액

| 소유형태     |        | 1952년 | 1957년 | 1978년 | 1985년   | 1991년   |
|----------|--------|-------|-------|-------|---------|---------|
| 個人<br>私營 | 기구수(만) | 407.0 | 41.3  | 10.8  | 618.9   | 777.3   |
|          | 직원(만인) | 589.5 | 46.7  | 13.6  | 836.9   | 1,134.5 |
|          | 매출(억원) | 168.6 | 12.9  | 2.1   | 661.0   | 1,844.4 |
| 公私<br>合營 | 기구수(만) | -     | 18.7  | -     | 0.3     | 0.2     |
|          | 직원(만인) | -     | 84.2  | -     | 2.9     | 3.6     |
|          | 매출(억원) | -     | 76.0  | -     | 12.7    | 51.5    |
| 集團<br>所有 | 기구수(만) | 10.1  | 123.3 | 89.1  | 136.2   | 117.6   |
|          | 직원(만인) | 70.7  | 258.6 | 336.2 | 665.4   | 672.3   |
|          | 매출(억원) | 50.3  | 195.8 | 674.4 | 1,600.3 | 2,826.2 |
| 國營       | 기구수(만) | 2.9   | 12.0  | 4.9   | 22.9    | 29.0    |
|          | 직원(만인) | 49.3  | 179.4 | 97.6  | 290.8   | 388.3   |
|          | 매출(억원) | 45.0  | 176.3 | 850.1 | 1,740.0 | 3,783.7 |
| 集貿<br>市場 | 시장수(만) | -     | -     | 3.3   | 6.1     | 7.5     |
|          | 매출(억원) | -     | -     | 125.2 | 632.2   | 2,622.2 |

자료 : 『中國統計年鑑』, 1992 및 『中國市場統計年鑑』, 1994.

1류 품목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품목으로 통일수매·통일판매를 원칙으로 하는데 식량, 식용유, 면, 목재 등이 포함된다. 2류 품목은 할당수매 후 자유시장 출하가 가능한 품목으로 육류, 청과물 등이 포함되었다. 3류 품목은 협의수매품목으로 자유시장출하가 가능한 품목으로 1류와 2류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이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청과물은 2류 농산물로 지정되었으나 상해시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통일수매·통일판매 품목으로 지정되어 할당수매품목으로 관리되었다<표3-2>.

계획경제하에서의 농산물 유통은 기본적으로 교환방식과 유통체계에서 통일구매와 통매판매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1953년부터 농산물에 대한 저가 통일구매와 통일판매 제도가 실시되었다. 정부는 ‘지령성(指令性) 계획’에 의하여 저가로 농산물을 일괄 수매, 일괄 판매함으로써 공업화·도시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 마련과 식량 및 원료 공급을 충족시키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점적 국영상업조직을 건립·발전시키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는 통제하고 협동화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집단상업에 대

표 3-2. 농산물 유별 적용 유통제도

| 류별 | 적용유통제도       | 관리부문                               | 대상품목                                                       |
|----|--------------|------------------------------------|------------------------------------------------------------|
| 1류 | 통일수매<br>통일판매 | 식량계통, 供銷社<br>물자국                   | 식량, 식용유, 면, 목재                                             |
| 2류 | 할당수매         | 상업부, 供銷社<br>외무부, 농업부<br>경공업, 임업부 등 | 돼지, 난류, 채소, 과일,<br>수산물, 한방약재, 제당원<br>료, 천연고무 등 약 100<br>품종 |
| 3류 | 협의수매         | 기본적으로 자유로운<br>출하가 가능               | 1류, 2류 이외의 농산물                                             |

해서는 소유제의 점진적 시행과 함께 기타 경영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여기에 농산물의 자유무역과 장거리 운송판매, 도시와 농촌의 농산물무역시장을 점차 제한 또는 취소하였다. 농산물 유통조직 및 교역에 대한 정부의 독점과 통제로 1978년 국영·집단 상업기업의 유통점유 비중은 전체 상업조직 중 85.8%, 총인원 95.7%, 농산물수매총액 94.4%, 상품매출총액 97.9%에 달하였다.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농촌에 정치권력과 경제조직을 통합한 인민공사가 건립되고, 도시와 농촌인구의 호적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고도의 집권적 관리체제는 결국 농민들의 재산과 생산경영의 자주권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농산물의 일괄구입과 일괄판매제는 가격형성 및 수급관계를 왜곡함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산물의 저가구입과 판매 및 배급제는 시장 기능을 경직화시킴으로써 농산물시장의 수급 및 가격을 왜곡시켜 결국 농업생산성의 감소와 함께 유통효율성을 저하시켰다.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농산물시장의 발전이 더딘 요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우선 거대한 인구 규모다. 첫째, 개혁·개방화 초기 총 인구는 11억명을 상회하였다. 상대적 생산력 수준의 저위 상태에서 농산물 생산은 인구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둘째, 농업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1986년 1인당 경지면적은 0.1ha로 농산물 생산증대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재래식 농법과 인력에 의한 자급자족적 소규모 영세농 위주와 영농조직의 낙후성을 들 수 있다. 1978년 전국 농업총생산액은 1,567억 원으로 국민 총생산액의 22.9%에 불과하나 농업노동력은 전체노동력의 76%에 달하고 있다.

한편 농업은 공업화를 위한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서 폐쇄경제하에 농업과 농산물시장 등은 국가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부문 정도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상품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농산물시장의 발전속도가 지연되고 시장 기능은 왜곡되었다. 그리고 유통관리 조직체계도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행정기구로부터 이중적인 규제를 받아 효율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 각 상업기구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책임구분이 불명확하고 손익을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는 책임경영이 불가능하였다.

## 나. 개방개혁 이후 유통체계

개혁개방화 이후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 공급이 대폭 증가되었다. 제11기 3중전회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도급책임제를 생산과 연계시켰다. 각 농가별 도급책임제는 농민의 재산 및 노동성과에 대한 소유방법의 개선이었다. 도급제는 시장에서 농민의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방법과 경영조직형태에서 인민공사체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업생산 여건과 시장 수급상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산경영이 가능하였다. 개혁개방화 이후 정부는 몇 차례 농산물의 수매가격의 상향조정과 동시에 유통체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장거리 운수판매와 지역 간 교역을 허용하였다. 농산물 일괄구입과 일괄판매제를 계약주문제로 전환하였다. 개혁개방화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공급을 크게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비와 수요도 대폭 증가시켰다.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소득증가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소비량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사회주의 공유제 유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통조직과 유통경로가 다원화되고 상호경쟁하면서 공동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유통 패턴이 형성되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시장 수와 거래액이 급격히 증가하

여 농산물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유통경로의 다원화는 농산물 경영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각종 농산물시장이 신규로 건설되고 정기시장이 도매시장으로 전환되면서 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의 중심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농산물 유통경로의 다원화는 장기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농산물 유통을 크게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산물의 생산·공급·판매를 촉진하고 농산물시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동시에 정부는 농촌판매협작사를 관영에서 민영으로 전환함으로써 합작경영을 시도하게 되었다.

농업생산체제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관리방법과 교역방법에 대한 개혁의 기본방향은 농산물의 생산·공급·판매에 대한 지령성 계획은 점차 감소하고 지도성(指導性) 계획과 시장조절을 결합하는 관리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1979년부터 수차 수매가격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초과수매부분의 할증가격을 높였다. 1984년에는 전국농산물수매가격의 총액이 1978년에 비하여 53.6% 제고되었는데 해마다 평균 7.4%씩 상승됨으로써 농산물가격이 비교적 크게 상승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일괄수매를 적용하는 농산물의 품목을 1978년의 113종에서 1984년의 40종으로 감소하였다. 농산물 판매에서 정부는 고기·닭·계란·우유·채소 등 8종 농산물의 소매가격 역시 수매가 상승에 맞추어 높임과 동시에 농산물의 일괄판매범위를 축소하고 합의가격에 의한 판매와 시장에서의 자체판매범위를 확대하였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량이 증가하자 농산물의 최대매입자인 정부의 수매와 판매가격의 차이에 의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5년에 농산물의 일괄구입, 일괄판매제도에 대하여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농산물수매에서 연초 외에는 일괄배당과 수매제도를 취소하고 계약에 의한 주문수매와 시장수매로 대체하였다. 그 중 곡물, 면화, 기름은 주문수매를 실시하여 3:7 비례제로 가격을 계산(30%는 일괄수매가격, 70%는 시장가격)하고, 그 외

의 것은 자유로 시판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 만약 시장가격이 일괄수매가격보다 낮을 때는 정부가 일괄수매가격으로 구매하였다. 고기, 닭, 계란류 등 신선한 농산물은 권장에 의한 합의구매와 시장구매를 실시하였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계획관리를 실시하는 농산물은 곡물, 식용식물류, 면화, 두류와 깨, 돼지, 차, 양모, 소가죽 등 8종에 불과하였다.

개혁개방화 이후 도시와 농촌의 농산물 시장교역이 급속히 발전되었다. 1986년 전국의 농산물 정기시장은 6만 3천개소로서 1978년보다 89.2% 증가하였으며, 거래규모는 동기간에 6.1배 증가하였다.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한 각종 농산물 도매시장과 교역센터 등의 건설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개혁전의 국영기업과 공급 및 판매합작사에도 자체적으로 도매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구획과 행정소속관계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도매시장의 낙후는 개혁 전 중국농산물유통이 침체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1979년 이후 농촌의 상품경제와 농산물 정기시장교역이 발전됨에 따라 각종 형태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교역센터도 생겨났다. 이와 함께 여건이 비교적 좋은 일부 도시와 농촌의 농산물정기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각종 농산물도매시장 또는 교역센터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정부의 지원 하에 신속히 보완·성장되었다.

각종 시장의 건설과 함께 농산물시장의 기반시설이 크게 확충되었다. 개혁 전 도시·농촌의 농산물정기시장의 기반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대부분이 노천에서 전근대적으로 거래되었다. 그리고 도량형·저장시설·운송수단·정보제공 등 각 분야의 조건이 매우 나빠 상품유통이 발전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혁이후 농산물시장의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은 매우 큰 발전을 가져왔다.

개혁개방화 이후 주곡 외의 부식물로서의 주요 농산물 생산과 공

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1979~1986년간 전국의 고기, 가금, 달걀류, 우유, 수산물, 채소, 과일의 생산과 공급이 계속 증가되어 1986년에는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농산물 품목 및 규격의 다양화와 지역 간 교역규모의 확대, 그리고 가격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었다. 특히 지역 간 교역규모의 확대와 각종 형태의 중간상인의 출현으로 농산물의 지역 간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산지와 소비지 및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

## 2.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 현황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산물 유통업과 농산물 시장이 발전하면서 주체, 업종 등이 다양화되고 유통구조와 시장 시스템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유통주체 유형에는 국유기업, 국유 및 국유주식통제기업, 집체기업, 기타 연합경영기업 및 사유기업, 외자기업 등이 있다. 시장점유율로 볼 때 국내기업, 공소합작사, 민영기업, 농업생산자 등이 농산물 유통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이한 성격의 경제유형과 유통조직의 공존, 수준이 다른 시장의 공존은 현재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와 시장구조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3-1>.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각종 농산물의 특징과 수급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유통구조를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1990년대 중·후반기에 들어서 식량, 면화 등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정가제와 자유구입가제를 시행하였다. 먼저 식량유통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방향은 식량생산에 대한 지원과 시장관리 강화이다. 1998년 식량 생산과 수급 형태의 변화에 따라 국가에서는 정부와 기업 분리, 중앙과 지방의 책임 분리, 신규 회계장부 분리, 가격메커니즘 실

그림 3-1.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와 시장



행 등 일련의 정책성 조치를 시행하였다. 2000년에는 식량 수요기업이 직접 농촌 현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농촌시장의 개방을 지원하였다. 1998년부터 면화 및 공업원료 농산물의 시장화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외 육류 및 신선농산물 등의 시장도 개방하였다.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의 실현을 의도한 것이었다.

둘째,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정부는 농산물 유통체제개혁과 함께 농산물가격 체계에 대한 개혁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식량가격제도를 개선하고 농산물간 상대가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 식량의 구입가와 판매가를 인상시켰으며, 1997년부터는 식량구매 보호가격제를 실행하였다. 농민들로 하여금 수요변화에 대응한 공급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8년에는 양질 벼의 가격을 인상시켰다. 1999년에는 식량의 정가와 보호가격을 일부 인하시킴으로써 식량가격에 품질, 등급, 계절 및 지역차이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에는 북방의 봄 밀, 남방의 올벼와 강남 밀 등 일부 품질이 낮고 시장 판매가 어려운 품목을 국가 식량 보호가격 구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1년 정부는 주요 판매 지역의 식량가격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곡물가격을 완전히 시장조절 기능에 맡겼다.

셋째,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통해 개방, 통일, 경쟁, 질서가 있는 시장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농산물 시장정보제공체계, 품질표준체계, 검사와 검측체계 등 관련 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생산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시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1998년 이전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주로 ‘채랍자공정’에 의해 진행되면서 많은 저장창고가 건설되었다. 이러한 저장창고는 199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도매시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시장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초급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농산물 주요 산지에서 지역적 또는 전국적 규모의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1999년 중앙정부와 각 지역은 ‘생산지 도매시장을 농업기초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해 나감과 동시에 농산물 도매시장도 함께 건설해 나갔다.

넷째,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정책의 추진과 함께 농산물 시장정보,

품질표준체계, 검사 체계를 강화하였다. 1998년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수집과 발표를 제도화하고 농민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2000년에는 농산물 시장정보와 식품안전 및 품질표준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부는 2001년부터 3~5년간 전국 성, 시, 현, 향진기업, 시장, 농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장정보 서비스 망을 구축하고 농산물 시장정보 수집과 발표제도의 완벽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00년부터 5년 간 2,500여종의 농업 업종표준 및 농산물 품질표준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의 다양한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유기업과 공급판매 합작사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자립경영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경제 주체가 되도록 하였으며, 농산물 유통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유제와 지역, 업종을 뛰어 넘는 다양한 형태의 합작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농민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농민의 시장진입이 조직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과학기술과 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농업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공·판매기업과 농가가 협력하고, 무역·공업·농업이 일체화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과 판매의 직접연결, 체인경영, 물류송달, 다양한 형식의 연합체 운영,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 관련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여섯째, 중국 정부는 농산물시장 유통질서에 대한 정돈과 규범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94년부터 월별 주요 농산물 가격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중요한 농산물 구매가격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가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검사 표준을 강화하였다. 1998년부터 농산물시장 유통질서를 정돈하고 규범화하는 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불법 유통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소비

자 권익침해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농산물시장 유통주체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각종 시장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조사 통계와 분석제도를 개혁하고 전문가에 의한 가격심의제도와 정책공시제도를 실행하였다.

## 제 4 장

#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 1. 유통환경의 변화와 유통다원화

중국의 식품유통은 1979년의 개혁·개방 이전과 그 이후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은 정부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유통·소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농산물 시장 기능이 왜곡되고 자원배분 및 수급 불균형이 만성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생산체제가 개혁되고 국가, 집단, 개인 등으로 소유가 다양화되면서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었다. 특히 각종 시장을 포함한 유통기구의 소유는 국가소유에서 집체, 합자, 개체, 사영, 합자, 주식회사 등으로 다원화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시장의 유통체계의 개혁이 급속히 진행되어 다양한 경영방식이 도입되고 다원화된 유통체계가 형성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유통에서 시장 기능에 의한 상품가격의 결정이 전체 거래에서 95%에 이르고, 국가

가 공식가격을 결정하는 비중은 특정 상품에 대해 전체의 5%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농산물시장에서 다양한 가격대와 품질의 상품거래가 활성화되고, 수급에 의한 가격형성은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고시켰다. 이와 함께 산지와 소비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통주체가 형성되어 시장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시장이 건설되어 시장구조가 완전경쟁구조로 전환됨으로써 시장 기능이 급속히 활성화되었다.

중국경제의 대외개방과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1995년 외국기업의 연쇄점 진출을 허가한 이후 다국적 유통업체의 등장과 함께 전통적인 백화점 외에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 창고형상점, 쇼핑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 유통기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변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대형 슈퍼마켓인 외국계 유통기업의 대형할인점들이 상해 등 대도시에 점포를 확장하면서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대도시 중국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전형적인 소매시장인 집무시장에서의 농산물 유통은 여전히 산물 형태의 거래로 거래 및 물류표준화와 시장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나, 외국계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는 포장규격이나 품질을 산지상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산지 유통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대형 슈퍼마켓이 산지에 직접 농장을 경영하거나 산지유통인 또는 생산자와 계약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산지의 유통구조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산지 및 소비지 유통구조 변화와 동시에 소비자의 식품소비 및 농산물 구매 패턴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특히 동부연안 공업지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득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 소비는 色, 香, 味 뿐만 아니라 소비의 편의성, 다양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추세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도시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

의 시간 의식에 대한 변화로 편의식품 소비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지에서는 농산물 가공비율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고소득층의 확대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안전농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등과 같은 안전농산물의 생산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검사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문시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농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에서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산지 생산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무로 새로운 식품수요가 증대되고 식품소비의 편의성 추구로 산지의 가공활동 등 고부가가치 생산 패턴이 증가추세에 있다. 즉, 전통적인 농산물이나 식품선호 양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등 신제품에 대한 수요급증에 산지가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패턴 및 소비성향 변화와 함께 농산물 생산 형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소득 향상에 따라 청과물, 특히 채소류의 경우 계절성 품종의 재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계절성 또는 주년성 품종과 재배방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강한 독성과 다량의 잔류농약이 함유되고 과도한 화학비료가 사용된 채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고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무공해 채소, 영양채소, 녹색식품 채소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중국의 무공해농산물 생산기지 면적은 93.2만ha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총생산량은 1,025만톤, 이 중 채소생산량은 약 500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판로가 양호하고 가격대가 높은 파, 마늘, 생강, 고추, 향채, 산나물 등 양념 채소의 생산량과 수요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채소산업은 야생형(野生型) 채소의 수요량 증가, 보건형(保健型) 채소의 개발, 향료형(香料型) 채소 품종의 다양화 등으로 생산과 공급량은 급증 추세를 나타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 쓰레기와 환경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운송비용 절감, 소비자 구매 패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산지에서 다듬거나 포장되어 상품화된 청결한 농산물의 출하가 증가 추세이다.

한편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 참여하는 각종 유통기구가 신규로 조직화되고, 다양한 상인이 출현하고 있다. 중국 농산물 유통의 경우 현재 수많은 종류의 중간업자들이 산지와 소비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집출하업자, 도매업자, 중간도매업자, 소매업자 등과 같이 뚜렷이 그 역할이나 기능이 구분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유통업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그 기능이 매우 단순하다. 그 결과 유통마진이 매우 높은 단계로 농가 수취율이 낮고 소비자 지불가격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농업의 개방·개혁 이후 1990년대에 농산물 도소매유통에서 국유 및 집체상업의 급속한 비중감소에 대신하는 유통조직이어나 기구가 육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생산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산지조직이 육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과일의 경우 산지유통은 지방정부와 국영회사가 전체 생산량의 약 30%를 취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별 생산농가와 산지수집상 등 민간업자가 취급하고 있다.

## 2. 산지의 생산 및 유통체계

### 가. 산지의 생산정책

1979년 중국의 농촌개혁으로 농산물 구매가격과 채소 등 부식품의 소매가격을 대폭 인상, 정부 할당 구매물량 외는 자유시장에 판

매를 허가하여 자유시장 거래가 회복되고 개별 농가 생산책임제(가정승포제)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부터 채소, 과일의 할당수매제도가 폐지되고, 1985년에는 소수 품목(담배, 면화, 설탕 등)을 제외한 전 품목의 통일수매 및 할당수매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청과물 등 원예작물의 생산 및 유통구조가 변화되고, 생산단계에서 종전의 통일생산·공급체제에서 개별 농가의 자유생산·출하체제로 전환되었다.

1988년 중국 정부(농업부)는 신선채소의 생산·공급정책으로 채람자공정(菜籃子工程)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청과물 유통체계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채람자공정이란 도시 소비자들의 식품 구매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식품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생산 및 유통기지를 건설하고, 채소시장의 개방화와 가격정책의 개혁을 통해 시장기능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채람자공정의 핵심은 시장 기능을 통하여 도시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충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수매가격 및 부식품 소매가격을 대폭 인상(평균 20% 이상)하여 채소 생산·공급량을 증대시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그 결과 채소 재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이 1980년 이후 약 15% 수준으로 청과물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특히 신선식료품 생산기지를 각지에 건설하여 청과물의 생산·공급체계가 대폭 개선되었다. 남방(해남성, 광둥성, 운남성 등)에는 겨울 야채산지를 조성하고, 북방에 하우스 야채산지 육성하는 등 채소류의 산지 육성전략을 적극 추진하였다. 1992년 이후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채소유통 및 가격의 전면 자율화와 개방으로 채소(시설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급증하고 영세농가 중심의 자유생산·판매의 유통체제가 전개되면서 채소산업이 농업의 기초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상해시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었다. 상해시는 공업·상업·금융 중심의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농업생산 비중과 청과물 공급부족으로 외부 의존율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1979년 이후 농업혁명과 호적제도의 개선으로 주변 농촌 지역의 인구가 상해시로 유입되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종래의 주변 산지의 생산량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중앙정부의 채람자공정의 추진으로 산지에 현대적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가공기업을 육성하였다. 동시에 유통시설 건설을 확충하고 우량품종 개발·보급 등으로 채소 등 부식품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1993년에는 새로운 채람자공정의 실시로 채소와 부식품 생산기지를 상해시 근교농촌에서 원거리 농촌으로 이전하여 생산기지의 대규모화와 생산·유통·판매의 계열화를 추진하였다.

1995년에는 전국의 지역 간 채소 운송체계의 조절을 통한 원활한 시장공급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중앙부식품 위험기금을 설치·운용하였다. 국내무역부에서 국유 채소회사를 조직하여 지역 간 채소운송을 조정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과일의 경우 1984년부터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다. 주로 지방정부에서 적지적산 원칙에 맞는 경영지도, 기술훈련 및 교육, 시장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상대적 고소득 작물인 경제작물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과수농가에 대해 국가 농림특정 농산물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 나. 산지 유통체계

1992년 이후 개별 영세농 중심의 자유생산·판매 유통체제 하에서 주요 채소산지는 종래의 대도시 근교농촌 중심에서 원격지로 점차 확대되면서 원격지 산지시장이 활성화되고 대도시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통신 및 운송수단

의 발달과 도로조건 등의 개선으로 채소를 포함한 농산물의 유통권역은 광범위화·전국화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산지 도매시장이 건설되면서 초기에는 산지 생산자들이 대부분 도매시장에 출하하였다. 산동성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1985년에 개설된 수광시장의 경우 개설 초기에는 인근 생산량의 대부분이 수광시장에 출하되었다. 그러나 상품 생산량이 증대되고 도매시장 유통권과 산지권이 확대됨에 따라 진(鎭)과 마을 단위(村)에 소시장(小市場: 집하 및 판매거래소, 산지시장)이 설치되었다.

산지상인의 종류와 상행위를 보면 마을 단위(村) 소시장에는 지방중매상인(수집반출상)과 전송판매업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각각 산지중앙도매시장(예: 수광도매시장)과 대도시 도매시장이나 농무시장(農貿市場 또는 自由市場)에 출하하고 있다. 지방중매상인은 대부분 지역농가 출신이 대부분으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한기나 성출하기에 소시장에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지방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하는 상인으로 한국의 지역 산지수집·반출상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한 상행위는 산지 소매시장인 소시장에서 직접 매취하여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운송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소비지 도매시장 내 단골 상인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다. 지방중매상인 중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농산물을 수집하거나 중매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인도 있다.

지방중매상인은 대부분 3륜차나 소형 트럭을 이용하여 소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산지를 마을 단위로 순회하면서 청과물을 구매하여 지방도매시장 등으로 반출하고 있다. 지방중매상인은 산지와 소비지 또는 도매시장 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진촌(鎭村)의 소시장과 농가에서 구매한 가격과 중앙도매시장 판매가격 차를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지상황과 각 산지의 생산·출하품

목, 생산·출하량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방중매상인에 비해 운송판매업자(전송판매업자)는 일종의 대규모 수집반출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한 상행위는 산지의 소시장이나 산지도매시장의 도매상이나 거래대리점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집·구매하여 대도시 소비지 도매시장 상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수광시장의 경우 전체 거래량의 약 80% 이상이 전송판매업자에 의해 대도시 소비지로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송판매업자는 대체로 소비지 출신자와 산지 현지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소비지 출신자의 경우 산지 도매시장의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또는 현지대리인으로 도매상에게 구입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매 형태이다. 그러나 현지출신의 전송판매업자의 농산물 집하·구매는 대부분 산지중앙도매시장에서 보다 촌진시장(小市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하는 전송판매업자는 대부분 친척이나 친구 등으로 구성된 5~6명 정도의 회사 형태를 조직하여 합동으로 유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즉 이들 유통팀들은 산지 구매조, 운송조, 도매시장 판매조로 나누어 각각의 유통활동을 전문화하고 있다. 전송판매업자가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1회 출하분은 대체로 3~5톤 트럭 1대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채소 생산량이 증가하고 산지에 다양한 상인이 출현함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산지도매시장을 개설하기 시작하였다. 산동성 수광시의 경우 현재 채소전문 도매시장 8개소, 농무시장(일종의 自由市場) 168개소, 산지 임시시장 약 300개소가 있으며, 베이징, 심양, 상해, 항주 등 주요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다. 수광시(약 35,000ha, 220만 톤, 약 30억 元)와 태안시(약 40,000ha, 150만 톤, 약 15억 元)는 산동성 최대 시설채소산지와 최대의 채소도매시장(수광시, 1984. 3. 건설)으로 형

성되어 있다.

농가의 출하방식은 대부분 개인출하로 소시장에 직접 출하하거나 현지를 방문하는 지방중매상인에게 정전판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산지 소매시장인 소시장에 직접 출하할 경우 운송수단은 인력거, 삼륜차, 자전거가 대부분이며, 원거리의 경우 소형트랙터, 삼륜차 등이다. 소시장에 출하하는 농민은 시장사무소에 일정액의 자릿세를 주고 본인이 반입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일부 시장 내 다른 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시장은 일정한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고정건물보다는 노천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종의 상설 시장화되어 있다. 시장 내에는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가 없고 노천에 반입한 농산물을 벌크 형태로 진열하거나 손수레 또는 삼륜차에 적재한 상태로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다. 농민들의 반입수단은 대나무 광주리 단위부터 리어카나 3륜차 단위 등 규모가 다양하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영세하다.

#### 다. 농산업화와 산지유통체계

『농업의 산업화 경영』은 농가와 시장의 관계를 강화하여 농민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농민과 농업 관련 선두기업이 상호의존·결합하는 형태이다. 『농업의 산업화 경영』은 현재 중국농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과제로서 농민의 시장참가 및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의 구조개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산지 유통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농업의 산업화 경영』은 농산물의 생산·구매·가공·국내외 판매의 전과정을 일체화시켜 선두기업 책임하에 합리적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각 참여 주체의 역할을 보면 농가는 기업과 약정을 맺고 작물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며, 기업은 시장정보, 기술, 관리

경험을 농가에 제공하고 가공·판매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조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농가와 기업이 공유하고 경영위험은 상호 분담하는 형식이다.

추진배경을 보면 농가소득의 감소, 향진기업의 성장둔화·정체에 따른 농촌경제의 침체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으로 모색된 것으로 1998년 제15차 3중전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농가가 작물을 단순히 재배하는 것만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체계 개편을 위한 농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농업생산의 기술보급, 시장정보의 전파, 생산물 판매의 어려움 등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중국 토지제도의 근간인 가정승포경영(家庭承包經營: 청부경영)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무원이 2000년 15차 5중전회를 통하여 『농업의 산업화 경영』을 농가소득 증대수단으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농업부 등 8개 부처는 중앙조정위원회를 구성, 20여 개 성정부는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면서 보조 또는 지원하고 있다. 중앙은 선두기업 151개를 지정·공포하고, 성 정부는 자체적으로 지정·공포하고 있다.

농업의 산업화 경영의 주요 정책 방향은 개별 농가보다는 농가조직화를 통해서 생산·가공·유통의 관리방법과 품질의 향상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농가와 파트너가 되는 각종 조직이 원격지 산지의 시장개척을 통하여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주로 식량작물, 면화, 유지작물보다는 청과물, 축산물, 수산물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농가와 파트너가 되는 기업조직(선두기업) 수는 1996년 11,800개에서 2000년 66,800개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기에는 용두기업(龍頭企業), 중개조직, 전문시장 등이 있다. 용두기업은 주로 산지에

서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의 핵심기업으로 27,000여 개소에 달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개조직은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와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22,000개소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시장은 특정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시장으로 현재 약 8,000개소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과 농가의 연결 형태는 계약, 제휴, 회원제, 주식제, 토지임대청부제 등 매우 다양하다. 계약은 농가와 생산·판매계약을 맺고 품종, 면적, 수량,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형태이다. 제휴는 기업이 출자하고 농민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기지를 만들어 기업이 생산기지의 농산물을 매입하여 처분하는 형태이다. 회원제는 각종 협회를 설립하여 농가가 회원이 되며, 협회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주식제는 농민이 용두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가하고 배당을 수취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토지임대청부제는 기업이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농민이 다시 생산하청을 받아 생산하는 형태이다. 이들 5가지 형태에서 중국 정부는 특히 용두기업을 농업의 산업화 경영의 핵심주체로 발전시키고자 2000년 10월 주요 용두기업 151개사를 지정·발표하여 농가의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10·5 계획 기간 500개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 3. 소비지 도매유통체계

#### 가. 중국 도매시장 발전

중국은 1987년 전국 10대도시 채소 유통체제 개혁의 실시로 채소 유통체제의 규모화·시설화를 추진하여 채소 도매시장 건설 추진과

함께 유통질서 확립 및 상행위의 규범화를 추진하였다. 개혁개방으로 계획경제체제가 지방정부 자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도매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8·5계획기간(1991~1995)에 전국에는 약 10만 개의 각종 도소매시장이 설립되었다. 농산물 도소매시장은 약 3,000개소에 달하였으며, 이 중 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이 약 2,000여 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매시장은 일반적으로 도시형 도매시장, 농촌형 도매시장, 생산재 도매시장, 소비재 도매시장, 중계형 도매시장, 판매형 도매시장, 전문 도매시장, 종합 도매시장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되었다. 건설·운영 주체별 도매시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운영 도매시장(국가, 성, 시정부 등)과 민간도매시장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산지형과 대도시 소비지형, 전문 도매시장형과 종합 도매시장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주산지의 경우 품목별 전문 도매시장이 많이 건설·운영되고 있다. 전문 도매시장을 예로 들면 감숙성 감자도매시장, 흑룡강성 목단강시목이도매시장, 귀주성 고추도매시장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정책 방향은 건설위주에서 점차 기존 도매시장의 시설개선과 개조에 중점을 두는 관리 위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무역부는 신규 건설 도매시장의 규모, 수, 지역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도매시장 개설 및 제도를 보면 전국에 도매시장이 급증하면서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건설, 체계적인 관리, 가격안정,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1994년 12월 국내무역부가 도매시장 관리법을 제정·발표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운영·관리의 지침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 도매시장을 중심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고, 국내무역부가 허가한 도매시장은 중심도매시장으로, 지방 상품유통부서가 허가하고 국내무역부에 등록한 시장은 지방도매시장으로 명칭되었다.

도매시장의 설립은 반드시 국내무역부, 성급 상품유통 주관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가능하다. 현재 중심도매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100여 개소 정도이며, 주로 농부산물, 일용공업품, 생산자재시장 위주로 건설·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중·대도시에는 국내무역부와 지방정부가 연합하여 1~2개소의 농산물 중심도매시장을 육성 추진하였다. 1995년 농업부는 전국 23개 대도시 및 산지도매시장(예: 베이징 대종사, 상해 조안로시장, 산둥성 수광 채소도매시장 등)을 신선농산물 중심도매시장으로 확정하였다. 농산물 중심도매시장의 기능은 상품의 수급 및 가격정보 수집·분석, 도매시장간 유통전산망 구축으로 유통효율성 제고, 대규모 도매시장과 연계한 농민들의 생산조직 및 유통조직의 발전과 확대 촉진 등이다.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크게 산지도매시장과 소비지도매시장으로 구분되며, 종합도매시장 형태와 부류별이나 품목별로 전문화된 전문도매시장 형태로 크게 구분된다. 많은 산지도매시장이 산지인근 도시에 형성되어 있어 대도시 소비지 도매시장과 그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산지도매시장의 경우 인근 성, 현, 진 등으로부터 산지수집상들에 의해 대규모로 수집되어 소비지로 분산되는 중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도매시장은 투자주체에 따라 국가급, 성·시급, 구급, 향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급은 중앙정부가 투자한 대규모 도매시장이며, 성·시급은 성과 시가 투자하여 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구급은 일반적으로 농민조직과 구의 합작투자이며, 향급은 농민조직이 출자한 시장이다.

농수산물 관련 전문 도매시장은 크게 수과·채소시장(水果·蔬菜市場: 청과물시장), 농부산물시장(農副產品市場: 농산물시장), 양류시장(糧油市場: 쌀·식용유시장), 육류시장(육류·계란시장), 수산시장(수산물시장), 목축시장(牧畜市場: 가축시장), 의약시장(醫藥市場: 한약재시장), 화조어충시장(花鳥魚蟲市場: 꽃·새·관상어시장), 다엽시

장(茶葉市場: 차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과물 도매시장의 경우 크게 과일시장과 야채시장으로 구분되며, 그 외 감귤, 대추, 고추, 버섯 등 품목별 전문도매시장도 다수 개장되어 있다<표 4-1>.

표 4-1. 부류별 중국의 농수축산물 주요 도매시장

| 구 분     | 주요 도매시장                                                                                                                                                                                                                                                                                                                                                                                                    |
|---------|------------------------------------------------------------------------------------------------------------------------------------------------------------------------------------------------------------------------------------------------------------------------------------------------------------------------------------------------------------------------------------------------------------|
| ○ 과일·야채 | 北京大鍾寺市場, 北京市北太平庄市場, 北京市水堆子蔬菜水果大型集貿批發市場, 北京新發地農產品批發市場, 廣東省東莞市果菜副產品交易市場, 廣東省光州海珠庄頭水果批發市場, 廣州市南北水果物資交易市場, 廣東省新會市果菜批發市場, 武漢農副產品中心批發市場, 湖南省長沙果品交易市場, 長春果品市場, 長春蔬菜中心批發市場, 長春果品中心批發市場, 河北省永年縣南大堡蔬菜批發市場, 河北省隆堯縣辣椒市場, 河北省行唐縣紅棗市場, 重慶市柑橘批發市場, 四川省彭縣蔬菜批發市場, 山東省煙台市果菜批發市場, 山東省壽光蔬菜市場, 山東省魯南蔬菜批發市場, 煙台果品中心批發市場, 三峽果品中心批發市場, 江蘇省徐州淮海蔬菜批發市場, 南京市果品蔬菜交易市場, 陝西省咸陽蔬菜市場, 上海龍吳進口果蔬批發交易市場, 上海曹安市場, 北京國際精品水果中央批發市場, 四川省成都農產品批發市場 |
| ○ 농부산물  | 北京市海澱區西北旺集貿批發市場, 北京市信益祥食品批發市場, 北京農產品中心批發市場, 秦皇農副產品批發市場, 上海市最大的農副產品市場, 廣西憑祥市大型農貿市場, 沈陽市皇姑區北行農副產品市場, 安徽省吉和農副產品市場, 廣東省佛山市副食品批發市場, 廣東省廣州長城酒類綜合批發市場, 廣東省華南農副產品中心批發市場, 廣東省廣州清平集貿市場, 廣東省廣州東旺食品綜合批發市場, 廣東省海門市農產品中心批發市場, 深圳布吉農副產品批發市場, 山東省青島市農副產品批發市場, 山東省平度市農副產品市場, 成都農產品中心批發市場, 福建省福州市土特產批發市場, 湖北省華中糧食中心批發市場, 湖南省長沙市橋東農副產品批發市場, 內蒙古通遼開魯縣紅干市場                                                                      |
| ○ 쌀·식용유 | 河北省深縣辰時鄉花生市場, 河北省大名縣花生批發市場, 河北省定新縣糧食批發市場, 河北省冀南糧油批發市場, 廣東省廣州走馬崗糧食市場, 山東糧油批發市場, 四川省新都縣糧食市場, 無錫市糧油中心批發市場, 吉林省長嶺縣葵花油料批發市場, 武漢市華中糧油中心批發市場, 江蘇省徐州糧油批發市場, 河南省中原芝麻批發市場, 安徽省蕪湖市大米批發市場, 黑龍江省綠豆批發市場, 黑龍江糧油中心批發市場, 吉林玉米中心批發市場, 湖北省武漢市料油食品貿易中心, 陝西省魚河糧食市場                                                                                                                                                              |

| 구 분           | 주요 도매시장                                                                                                                                                                                                                            |
|---------------|------------------------------------------------------------------------------------------------------------------------------------------------------------------------------------------------------------------------------------|
| ○ 육류 · 계란     | 北京市禽蛋批發市場, 上海市肉類批發市場, 上海肉類商品批發市場, 成都肉類產品中心批發市場, 江蘇省如皋懸吳窯和熟肉市場, 安徽省蕪湖白肉批發市場, 安徽蒙城黃牛大市場, 山東省膠州市肉類批發市場, 山東省豬肉專業市場, 湖南省湘鄉市潭市蛋品市場, 廣東省廣州東寶蛇類批發市場, 成都肉類批發市場                                                                              |
| ○ 수산물         | 江蘇省昆山水產品市場, 山東省日照市海產品批發市場, 浙江省舟山市東河水產品市場, 浙江省湖州市淡水魚批發市場, 湖南省岳陽市魚巷子市場, 廣西北海水產市場, 上海十六鋪河蟹集散地, 膠東水產品批發市場, 舟山水產品中心批發市場, 廣東省中山市水產品批發市場, 廣東省深川市水閘水產品批發市場, 廣州棠湧海產批發市場, 廣東省南海市環球水產交易市場, 湖北省臨利縣朱河水產品市場                                      |
| ○ 가축          | 河北省翼南牧畜市場, 安徽省界首市牧畜市場, 江蘇省金壇縣城東苗豬市場, 湖南省新梘縣城關鎮牛市場, 湖南省洞口縣高沙仔豬市, 吉林山灣牧畜市場, 四川省洪雅縣耕牛市場, 貴州省關嶺縣花江牛市場, 河北無極北方肉牛交易專業市場                                                                                                                  |
| ○ 꽃 · 새 · 관상어 | 北京市花鳥魚蟲市場, 上海市江陰路花鳥魚市場, 上海市曹安花市場, 江蘇省都曹王花木市場, 廣東珠海花卉市場, 江蘇省如皋花木盆景市場, 江蘇省南京夫子廟花鳥蟲市場, 山東省夏津縣芙蓉鳥專業市場, 浙江省常山花石市場, 廣東省廣州沙河頂花鳥魚蟲市場, 福建省福州市花鳥市場, 黑龍江省江畔花鳥市場, 福建福州花鳥市場,                                                                    |
| ○ 차(茶) · 연초   | 安徽省中國茶城, 廣東省普寧市煙草專業市場, 廣東省煙草市場, 廣東省茶葉交易市場, 廣州市中國茶葉國際交易中心, 廣東省饒平縣煙草專業市場, 福建省寧德市七都茉莉花市場, 福建省安溪縣西坪茶批發市場, 云南省省綠豐縣澱西茶葉批發市場, 天津市茶葉批發市場                                                                                                   |
| ○ 한약재(中藥)     | 河北省巨鹿縣枸杞市場, 河北省安國藥市, 四川省石株縣黃連專業市場, 四川省雙流縣鼓鎮大廬市場, 山東省費縣朱田銀花批發市場, 浙江省洞陽市千祥藥材批發市場, 安徽省亳州市藥材市場, 廣東省廣州清平藥材市場, 河北省安國市藥材市場, 江蘇省樟樹藥材市場, 河南省禹縣中藥材市場, 四川成都市荷花池中藥材市場, 陝西省西安市萬壽路藥材市場, 廣東普寧市中藥市場, 重慶市解放路藥材市場, 昆明市菊花園藥材市場, 蘭州市黃河藥材市場, 湖南岳陽市花板橋市場 |

도매시장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청과물의 경우 대체로 수과비발시장(水果批發市場: 과일도매시장), 과채부식품교역시장(果菜副食品交易市場: 청과물도매시장), 수과물자교역시장(水果物資交易市場), 과채비발시장(果菜批發市場: 청과물도매시장), 농부산물중심비발시장(農副產品中心批發市場), 전업시장(專業市場: 품목전문도매시장), 과품교역시장(果品交易市場), 소채중심비발시장(蔬菜中心批發市場: 채소도매시장), 소채수과대형집무비발시장(蔬菜水果大型集貿批發市場: 청과물대형수집교역도매시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청과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농산물 및 가공식품 도매시장은 대체로 식품비발시장(食品批發市場), 농부산물비발시장(農副產品批發市場), 농산물중심비발시장(農產品中心批發市場), 농부산물시장(農副產品市場), 집무비발시장(集貿批發市場)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농산물만을 거래하는 특수 도매시장이 있다. 대표적인 특수 도매시장으로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최초의 자연보호식품(녹색식품) 도매시장인 금수대지녹색안전식품 전문시장(海定區 阜石路)이 있다. 거래되는 상품은 전량 베이징시 농업위원회의 품질기술감독국의 검사에 합격한 상품이며, 대부분 무공해식품으로서 야채, 과일, 곡물, 식용유, 육류, 가금, 난류, 수산물, 조미료, 술, 음료 등이 거래되고 있다.

## 나. 도매시장 유통체계

대도시의 경우 청과물공급은 일반적으로 대도시 중앙도매시장과 자유시장(集貿市場, 集市貿易市場)이 담당하고 있으며, 점차 자유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도시 중앙도매시장은 산지의 대규모 수집반출상 역할을 담당하는 전송판매업자들이 산지 소시장이나 산지도매시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 대체로 대도시 도매시장의 경우 타 지역의 청과물 반입량이 50~60%를 차지하

며, 인근 농촌 지역 등 본고장에서 생산된 청과물이 약 4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과 같은 북방지역 대도시의 경우 비생산기에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청과물이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다. 베이징시의 3대 도매시장인 대종사(大鐘寺), 신발지(新發地), 악명장(岳各庄)의 경우 겨울철 채소류 거래량의 약 97% 이상이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다.

대도시 도매시장에 반입된 청과물은 자유시장, 대형 유통업체, 청과물 소매점포 등으로 반출되고 있다. 베이징시의 경우 청과물 공급(연간 약 3억 톤)의 약 80% 이상이 대도시 중앙도매시장(예: 대종사, 악명장, 신발지 등 8개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나머지 20%는 약 532개소의 자유시장(集貿市場)을 통해 소비자에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대도시 도매시장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청과물인 객채(客菜)와 본고장에서 생산되는 가채(家菜)가 거래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객채시장과 가채시장이 구분되어 운영되는 곳도 있으나 반드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소주시의 경우 현재 객채시장 1개소와 가채시장 4개소가 운영 중이다. 청과물 도매시장의 운영 주체는 야채시장의 경우 시장 내에 야채그룹유한공사 등과 같은 법인과 개인 도매상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관리는 일반적으로 시의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이 담당하고 있다.

도매시장 수수료는 지역과 도매시장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도시 종합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내 판매법인(예, 야채그룹유한공사)이 도매상에게 거래금액의 약 5% 정도를 징수하고 있다. 그 외 시장관리자인 공상행정관리국은 칭량기(秤量器: 150kg 저울), 무역전문 인보이스, 영수증 등을 제공하고 주차료와 서비스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그 외 시장관리자의 역할은 청소, 회계, 안전 등이며 거래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도매시장 유통참여자는 산지도매시장의 경우 직접 반입하여 판매하는 생산자,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수집하여 반입하는 지방중매상인(산지수집상), 반입된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중매인(도매상인), 소매상인 등이 혼재되어 있다. 대도시 소비지도매시장의 유통 참여자는 인근 산지에서 반입하는 생산자, 진촌의 소시장과 산지도매시장에서 상품을 반입하는 전송판매업자, 생산자와 전송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도매상(중매인), 소매업자 등이 혼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도매시장 내 상인들은 도매와 소매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밤에는 주로 도매 기능을 수행하고 낮에는 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매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대체로 거래량에 의해 구분된다. 거래량이 많을 경우 도매로 취급되어 상품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거래량이 적을 경우 소매로 취급되어 단가가 높아진다.

도매시장의 주요 구매자는 대부분 소매상, 대형수요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낮 동안에는 일반소비자들도 주요 고객이다. 도매시장가격은 각 지역의 수급을 반영한 독립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상품의 포장화나 등급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물 형태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장별 상품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국 전역의 청과물도매시장 거래 형태는 기본적으로 매매 쌍방의 합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수의매매 형태이다.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청과물가격은 거래시 칭량입회인(秤量立會人)으로 시장직원이 당일의 거래중량과 가격을 확인하고 1일 1회 거래수량과 公斤(500g)당 가격을 품목별로 시장사무실과 시장출입구, 신문 등에 공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전국지인 농민일보에는 매주 1회 20개 품목의 주요 청과물의 단가를 전국 62개 시장에 대하여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청과물의 생산이 연도별로 큰 변

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별 출하동향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수집·분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농업부도 전국의 196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가격 변동, 가격 변동 요인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과물 가격은 산지도매시장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산지 인근 소비지도매시장, 대도시 도매시장, 신공업·개발지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소비지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체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유통시설의 낙후성, 관련제도의 미흡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매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소비지 도매유통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국유 및 집체상업의 급감으로 주요 대도시에는 각종 시장이 난립하여 적정한 시장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해시의 경우 서북지구 조안로(曹安路)에는 현재 8개의 각급 농산물 도매시장이 입지하고 있다. 국가급인인 江橋都賣市場, 시의 소재공사가 관리하는 성·시급인 眞如都賣市場, 본고 농민과 구 공상행정관리국(區工商行政管理局)의 합자인 구급(區級) 曹安路蔬菜都賣市場, 농민조직이 출자한 향급(鄉級) 蔬菜都賣市場 5개소가 있다. 이 중 강교도매시장은 적자경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구급시장인 조안로 소재도매시장은 흑자경영으로 시장정보 데이터베이스개발, 직원 재교육, 이익 사회환원, 시장질서유지 등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둘째, 시장이 규모화되고 투자주체가 다원화되고 있으나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표준화나 규범성, 통제성, 조절성 등이 부족하여 맹목적 건설 양상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간 시장정보의 흐름이나 교류가 폐쇄적·봉쇄적 운영으로 도매시장 적정 규모, 입지, 지역성 등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체계적인 시장 운영 및 관리체계 미흡으로 시장질서가 혼란하다.

그리고 맹목적 도매시장의 건설로 많은 도매시장에서 유장무시(有場無市)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무역부가 8·5 기간 중 (1994. 12)에 全國商品市場規劃綱要와 批發市場管理辦法을 제정하고 도매시장관리법을 발표하여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배치원칙과 국가의 통괄계획 원칙을 제시하였다.

#### 다. 유통경로

청과물의 일반적 유통경로는 생산자→산지중매상인(산지 수집반출상)→산지도매업자→전송판매업자→소비지도매업자→소매상→소비자 경로로서 다단계이며 복잡하다. 그 외 ① 생산자→산지시장→전송판매업자(대규모 수집반출상)→도매업자(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 경로, ② 생산자→산지중매상인→산지도매업자→소비지자유시장→소비자 경로, ③ 생산자→전송판매업자→도매시장(소비지)→소매상→소비자 경로, ④ 생산자→산지시장(진촌 소시장)→대형유통업체→소비자 경로, ⑤ 생산자 노천판매, ⑥ 생산자→도매시장(산지 또는 소비지)→소매상→소비자 경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경로가 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해 등 대도시의 경우 자산자소(自產自銷), 인근의 영세 개별 농가가 소규모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도매시장에 싣고 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그림 4-1, 그림 4-2>.

그림 4-1. 중국의 일반적인 채소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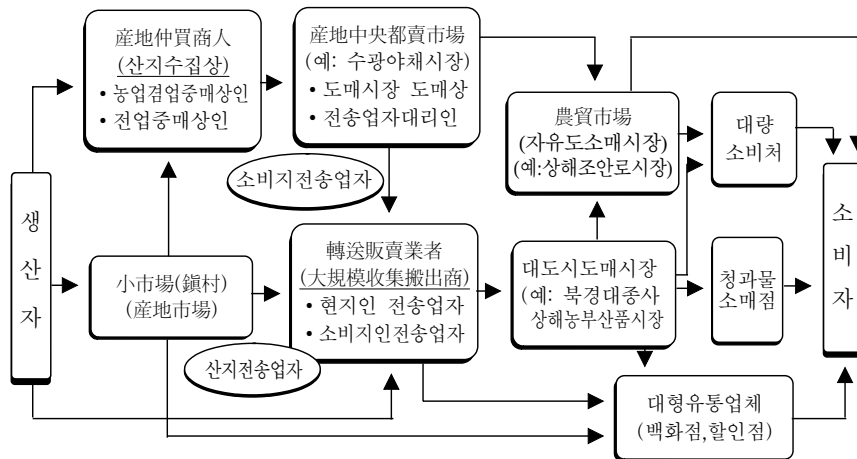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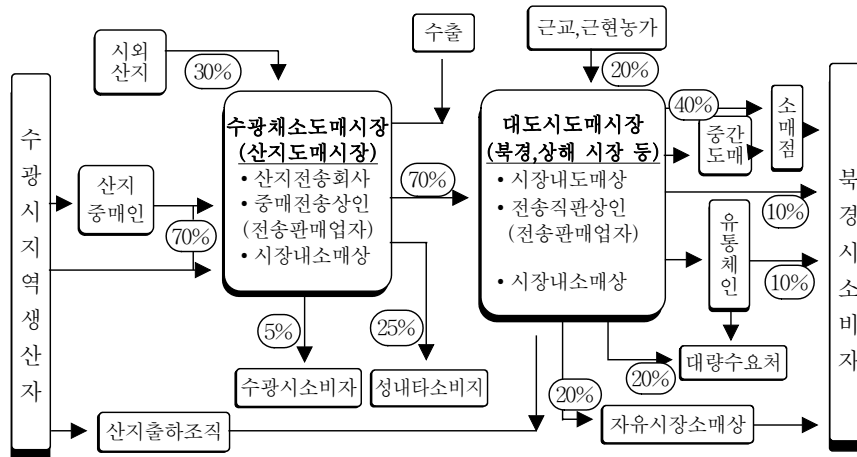


그림 4-2. 산지(수광시)와 대도시 소비지간 청과물 유통경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북경지사 조사보고서 자료.

## 라. 농산물 물류실태

중국의 농산물 물류는 수확 후 처리기술의 낙후 및 관련 시설과 장비 미흡으로 유통 중 감모, 손실, 상품성 저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연간 청과물 유통 중 감모·손실액은 750억 원(2000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총 생산량의 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수확 후 보관능력은 총생산량의 20% 정도로 나타나 선진국의 70~80%으로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유통 중 운송 과정에서 저온운송체계는 거의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시장 내 일관저온유통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농산물가공 실태를 보면 중국의 농산물(양곡, 과일, 대두류, 육류, 난류, 수산물 등) 생산량은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공 수준은 전체적으로 평균 약 20% 내외수준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의 70% 수준과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00년 중국의 농업총생산액에 대한 식품공업 총생산액의 비중은 35% 정도로 나타나 선진국의 25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농산물 수송 및 표준규격화를 보면 산지의 경우 대부분의 출하 형태는 벌크 상태로 출하되고 있으며, 출하용기는 대바구니, 손수레, 마차, 3륜차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지의 전송판매업자들은 산지시장에서 물량을 수집하여 1~5톤 트럭으로 대도시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산물 형태로 적재되고 있다. 그리고 농가단위의 포장규격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과일류의 포장은 산지수집상이 수집 후 개별 선별 및 포장으로 소비지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초보적인 포장규격화 형태이다. 포장 디자인은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상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장재의 경우 압축이나 파열강도가 매우 낮아 운송이나 저장 중 감모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 대도시 도매시장의 경

우 포장은 일부 과일류와 곡물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표준출하규격에 준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 출하자 개인포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소비자의 소매유통체계가 급변하면서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대규모 유통업체가 포장, 등급, 선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산지에서 점차 표준규격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농산물 브랜드화는 중국이 WTO가입 후 외국농산물과의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품질안전수준 제고와 지방별 우수농산물 육성으로 브랜드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급 명 브랜드 관리방법과 인증방법을 제정하고 있다. 채소 생산·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높은 수취가격을 위해 지방정부는 브랜드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베이징시의 경우 2000년 말 현재 약 750여종의 농산품 상표를 베이징시 공상국에 등록하였으며, 이들 상표등록은 대부분 국내 유명 브랜드 우수 상품 및 수입농산물이다. 상표를 등록한 농산물은 시장과 슈퍼마켓 등지에서 인지도가 높아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판매가격은 공상국자료에 의하면 일반 농산물에 비해 평균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시 등록 상표의 예를 보면 龍各庄(수박), 金把黃(배), 御塘(쌀), 御貢(감), 錄邦(채소), 燕香(밤), 北宮(복숭아) 등 주로 과일과 채소 위주이다. 그리고 상해시의 경우 상품 질 향상과 시장신뢰도 제고를 위해 1998년부터 브랜드전략을 실시, 최근까지 약 200여 개의 상업브랜드를 제정하였으며, 이 중 식품브랜드는 80여개(예: 浦東三黃鷄, 浦東肉鷄 등)이다.

한편 중국의 WTO가입 후 농산물 유통의 기본체계가 북방생산·남방운반(北糧南運)에서 남방수입·북방수출(南進北出)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북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상품은 북방에서 수출하고, 남방에서는 수입하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전체적인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 4. 소매유통체계

### 가. 소매유통체계

대도시 소매유통기구에는 집무시장(자유시장)이 가장 대표적이며, 슈퍼마켓과 할인점과 같은 현대적인 유통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 외 민간운영의 물류센터나 배송센터 등도 증가추세에 있다. 집무시장은 일종의 한국 소비지의 재래시장과 유사한 대도시 상설재래시장으로 계획경제하에서는 채시장에게 기능이 이전되었으나 개혁개방 후 활성화되어 가장 중요한 소매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집무시장은 민간 또는 민간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투자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개설한 소매시장이다. 집무시장은 1978년 33,302개소에서 1999년 88,576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농촌 지역 시장수의 감소로 그 수가 정체 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시의 경우 1979년 근교에 집무시장을 27개소를 개설하였으며, 집무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국영야채공사 수와 그 공급비중이 급감하였다. 1990년대 말 베이징시의 집무시장은 약 800여 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집무시장의 농산물은 대부분 도매시장과 인근 산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집무시장은 지역과 시장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개 시장당 약 150~200개소의 소매점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2>.

집무시장은 주시(晝市)와 조시(早市)가 있으며, 주시는 고정 시장 건물이 있으며, 조시는 대체로 도로변과 공지에 무점포 형태로 오전 중(6~9시)에 개장되고 있다. 조시는 시내환경과 시민생활의 불편 초래로 현재 베이징과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폐쇄되거나 고

정 건물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국영야채공사는 시인민정부가 야채공급안정을 위해 인근 농촌 지역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야채생산자는 국영야채공사에 공정가격으로 야채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야채공급기구였으나, 집무시장의 거래비중 증가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대도시의 경우 집무시장, 초시 외에 민간이 당국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는 물류센터나 배송센터 등의 건설·운영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베이징시의 경우 大興區龐各庄鎮에 위치한 聯合宏業農產物配送中心은 우수품질의 채소를 구매·가공하여 200개 점포에 매일 약 200 톤의 신선채소를 배송하고 있다. 배송센터는 농가와 직접 계약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농가에 농산물 안전 생산기술과 농자재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생산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상해시의 경우 시

표 4-2. 중국의 집무시장(자유시장) 현황

| 구 분          |     | 1978   | 1985   | 1990    | 1995    | 1999     |
|--------------|-----|--------|--------|---------|---------|----------|
| 시장수<br>(개소)  | 도시  | -      | 8,013  | 13,006  | 19,892  | 24,983   |
|              | 농촌  | 33,302 | 53,324 | 59,473  | 63,000  | 63,593   |
|              | 소계  | 33,302 | 61,337 | 72,579  | 82,892  | 88,576   |
| 거래액<br>(억 원) | 도시  | -      | 121    | 838     | 6,176   | 12,326   |
|              | 농촌  | 126    | 512    | 1,330   | 5,414   | 9,382    |
|              | 소계  | 126    | 632    | 2,168   | 11,590  | 21,708   |
| 부류별<br>거래액   | 농산물 | 64.8   | 297.2  | 1,395.7 | 5,678.7 | 11,017.6 |
|              | 농자재 | 10.4   | 13.9   | 23.0    | -       | -        |
|              | 목축류 | 20.9   | 32.6   | 38.3    | -       | -        |
|              | 공산품 | -      | -      | -       | -       | 8,767.1  |

자료: 『중국농촌통계연감』, 2000.

정부가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설하여 산지의 농산물을 직접 반입하여 상해시 소비자나 소매점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배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적인 우수농산물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 나. 농산물 유통시장 개방화와 소매유통

중국 국무원은 1992년 7월 “소매영역의 외자이용 문제에 관한 회답”에서 베이징, 상해, 천진, 광주, 대련, 청도와 5개 경제특구에 1~2개의 합자 또는 합작의 외자소매기업 진출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1993년 3월에는 생산재도매업을 개방화하고, 1995년에는 외국의 연쇄점업(네덜란드계와 일본계)의 베이징 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통시장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 6월 외국인 투자지도목록에서 소매, 도매, 원자재도매를 금지류에서 제한류로 전환하고 부분적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외국 유통기업(월마트, 까르푸 등)의 중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것이다. 급속한 개방화로 상해 등 대도시에서 선진외국 유통기업의 백화점이나 신업태의 급증으로 국유 백화점과 중소소매상이 큰 타격을 받자 1997년 5월에는 유통업 인가권한을 강화하여 중앙정부로 창구를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1999년 내수확대와 외자유치 및 WTO가입의 필요성으로 유통업의 대외개방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 후 외자 유통기업의 진출로 재래시장, 백화점 위주에서 슈퍼마켓, 편의점, 하이퍼마켓, 할인점 등 다양한 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며, 점포수와 점포규모가 대폭 확대추세이다.

유통시장 개방화와 함께 신유통업태의 급속한 시장진입과 체인화는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해, 베이징, 광주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업체의 체인화로 농산물 소매유통에서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산지에 규격화와 포장화 등 표준규격화

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산지유통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 유통업 개방은 2002년부터 6개 대도시(북경, 상해, 천진, 광주, 대련, 청도)와 5개 경제특구(심천, 주해, 산둥, 하문, 해남)에 한정된 외국기업의 유통업 허가를 각 성, 직할시 및 자치구의 수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지역별로 2개 이하의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제·물류중심지(북경, 상해, 진, 중경, 광주, 심양, 정주, 난주, 성도 등)에는 4개까지 설립이 가능하다. 개방 범위를 기존 소매업에서 도매업도 허용하여 4개 직할시에 1개소 설립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연쇄점업의 경우 기존의 베이징, 상해 2개 지역에서 9개 지역(북경, 상해, 천진, 중경, 광주, 심양, 정주, 난주, 성도)으로 확대하였다. 기업 형식은 반드시 합자 또는 합작형태만 허용되며, 소매업 합작투자에서 중국 측 다수지분 원칙은 2002년부터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하고 중경, 영파에도 소매합작기업 설립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 이전에 소매유통업의 지역, 수량, 주식 보유비율 제한규정 폐지하고, 외국 유통업체 점포면적 20,000㎡ 미만 제한규정을 폐지하며, 프랜차이즈는 2003년 1월 이전에 모든 제한규정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다.

중외합작 소매기업 현황을 보면 1992년 소매업체의 시범적 개방화 이후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 소매기업 수는 2000년 말 현재 약 300여 개에 달하며, 총투자액은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세계 50대 소매기업의 70%가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2000년 말 중앙정부 승인 28개사와 지방정부 승인 277개사가 진출해 있다. 중국 국내무역국은 중국의 소매상점을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백화점, 편의점, 도매상점(창고식), 전문점, 고급상점, 쇼핑센터 등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국무원 허가의 소매유통업체는 소수이지만 지방정부가 심사·허가한 유통기업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특히 상해 지역은 중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유통 인프라 설비 특히 물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최대의 유망 시장으로 외국기업이 가장 먼저 진출하였으며, 가장 많은 수가 진출한 상태이다.

주요 유통기업의 진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야오한(八百伴)이 상해의 제일백화점과 합작으로 포동지역에 상해 新世紀商厦(Nextage)를 개점(1995. 12.)하였으며, 상해, 남경 등에 슈퍼마켓, 연쇄점을 설치하였다. 세이부(西武)는 1993년 심천에 진출하였으며, 이세탄(伊勢丹)은 上海華亭伊歲丹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홍콩, 대만의 화교계는 광둥, 복건을 거점으로 점차 상해, 무한, 낙양, 베이징, 천진으로 백화점과 연쇄점업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월마트는 심천에 진출하였으며, 프랑스 까르푸(家樂福)은 上海華聯그룹과 합작으로 上海內外華聯綜合商社 슈퍼마켓 설립하였으며, 네덜란드 매크로(萬客隆)는 광주시에 진출하였다. 또한 한국유통업체인 신세계 이마트가 1997년 상해에 할인점으로 진출하였으며, 농심메가마켓이 2001년 상해에 할인점을 진출하였다.

주요 업체별 현황을 보면 먼저 백화점의 경우 규모의 대형화, 조직집단화, 경영 다원화, 신업태로의 영업확대 추세에 있지만, 과도한 백화점 건설로 주민의 실제 구매력 증가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백화점과 유사한 머천다이징 형태인 集體商業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중국의 백화점은 한국의 백화점과 같이 청과물과 수산물 등 신선농수산물을 취급하지 않고 대부분 가공식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슈퍼마켓의 경우 발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지역분포가 광범위하고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이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성장률은 연간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상해의 3대 연쇄기업(聯華, 華聯, 農工商超市)은 전국 10대 소매업 중 각각 1위, 5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슈퍼마켓은 대부분 연해 및 성장 대도시에 자리잡고 있으며, 백화점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슈퍼마켓은 일반적으로

초시(超市)라고 부르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유통업체인 까르푸 등 한국에서 할인점이라고 이르는 대형 점포도 초시라고 이르고 있다. 중국의 초시는 매우 다양한 규모가 있으며, 대규모의 경우 대부분 신선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소비지 소매유통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영세하다.

그리고 편의점의 경우 상해를 중심으로 빠른 발전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해의 경우 2000년에 1,000개의 편의점, 식품점, 부식점

표 4-3. 중국 주요 중외합작 소매유통기업 현황, 2001

| 유통업체명                                                                                                                       | 중국측기업명                                                                                                                 | 외국기업명                                                                                      | 소재지                              |
|-----------------------------------------------------------------------------------------------------------------------------|------------------------------------------------------------------------------------------------------------------------|--------------------------------------------------------------------------------------------|----------------------------------|
| • 上海東方商厦有限公司<br>• 上海佳世客有限公司                                                                                                 | • 上海市商業開發公司<br>• 華越商業有限公司<br>上海中華實業有限公司                                                                                | • 香港 上海實業公司<br>• 자스코(일본)<br>香港嘉里百貨商場有限公司<br>三菱商事(일본)                                       | 上海<br>上海                         |
| • 上海潤華有限公司<br>• 上海第一八佰伴有限公司<br>• 大連國際商貿大廈有限公司<br>• 青島第一百貨盛有限公司<br>• 青島東泰世客<br>• 天津華信商厦<br>• 天津大天國際商業有限公司<br>• 深圳沃爾瑪珠江百貨有限公司 | • 上海華聯商厦<br>• 上海第一百貨集團公司<br>• 大連商場柱式有限公司<br>• 青島第一百貨公司<br>• 青島供銷總社<br>• 天津泰達集團<br>天津華聯商厦<br>• 天津立達集團<br>• 深圳國際信託投資有限公司 | • 香港華潤有限公司<br>• 야오한 國際그룹(일본)<br>• 마이칼그룹(일본)<br>• 金獅集團(말레이시아)<br>• 자스코(일본)<br>• 香港新德集團      | 上海<br>上海<br>大連<br>青島<br>青島<br>天津 |
| • 廣州市正佳企業有限公司<br>• 廣東華聯百老匯商貿有限公司<br>• 汕頭特區金銀島商業中心有限公司                                                                       | • 廣州市佳景商業貿易開發公司<br>• 廣東省糖酒集團公司<br>• 汕頭市工商銀行<br>汕頭市旅遊集團公司<br>汕頭市果菜集團公司                                                  | • 正大集團(태국)<br>• 월마트(미국)<br>香港珠江投資有限公司<br>• 正大天河投資有限公司(태국)<br>• 香港國際百老匯發展有限公司<br>• 陳世賢氏(태국) | 天津<br>深圳<br>廣州<br>廣州<br>汕頭       |
| • 北京新東安有限公司<br>• 北京燕莎友誼商城有限公司<br>• 中貿聯萬科隆商業有限公司<br>• 華糖洋華堂有限公司                                                              | • 北京東安集團公司<br>• 北京燕莎商場<br>• 中貿聯製業有限公司<br>• 中國糖業酒類集團公司                                                                  | • 香港新鴻基地產北京有限公司<br>• 新城集團(싱가포르)<br>• 萬科隆(네덜란드)<br>臺灣豐群國際<br>• 이토요카도(일본)<br>伊藤忠商事(일본)       | 北京<br>北京<br>北京<br>北京             |
| • 鄭州丹尼斯百貨有限公司<br>• 武漢來來百貨有限公司                                                                                               | • 鄭州公交總公司<br>• 武漢中心百貨商場                                                                                                | • 臺灣中玉置業有限公司<br>• 臺灣來來豐群有限公司                                                               | 鄭州<br>武漢                         |

및 일용잡화점이 있으며, 취급 품목은 3,000~4,000품목, 평균 점포면적은 200~300m<sup>2</sup> 정도이다. 상해의 편의점은 9개의 연쇄공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각의 브랜드를 사용하며, 슈퍼마켓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업태로 평가받고 있다.

표 4-4. 중국 소매업 체인산업 현황

| 구 분   | 단위: 개소 |        |        |        |
|-------|--------|--------|--------|--------|
|       | 1995   | 1996   | 1997   | 2001   |
| 체인기업수 | 300    | 700    | 1,000  | 2,100  |
| 점포수   | 6,000  | 10,000 | 15,000 | 32,000 |

자료: 『China Marketing』, 2002.

## 제 5 장

# 상해시 청과물 유통체계

## 1. 상해시 청과물 유통체계 재편

### 가. 계획경제기 상해시 청과물 유통체계

상해시 청과물 생산·유통체계는 중국혁명 이후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제1기는 1949년 중국혁명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로서 이 기간의 청과물 생산·공급체제는 역내와 역외의 결합형(역외의존율 40%)으로 유통 형태는 각종 공사(公私) 경제조직에 의한 공동경영이었다. 제2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로 본격적인 계획경제기하의 유통체계이다. 동기간에는 역내(상해시지역)생산·역내공급 원칙하에 역내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유통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의 청과물 유통 형태는 상해시채소공사에 의한 독점담당으로 집권형(集權型) 유통 형태이다. 그리고 제3기는 개혁개방 후 1980년대 중반의 시장경제 형성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시장경제 도입과 농업생산의 자유화로 공영·민영의 다원적 유통

통주체가 형성·발전되고 있는 시기이다. 즉, 농산물 유통체계가 급속히 변화되면서 다양한 유통주체가 산지와 소비지에서 출현하고, 각종 유통기구가 설립되어 다원화된 유통체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계획경제하 상해시 유통체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단계는 인민공사제도하의 청과물의 계획생산 체제로서 상해시 관련 부서가 연간 소비량에 기초한 공출량(供出量)을 산출하여 재배면적과 품종을 결정한 다음 재배면적을 현·인민공사·생산대대·생산대에 순차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이 결정되고 유통체계가 형성되었다. 도매 단계는 상해시 채소공사의 공정가격에 의한 통일수매·통일판매 형태이다.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기능은 상해시 채소공사가 “채소수매·도매센터”라는 일종의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집하하고, 국영 채소시장을 통해 분산되었다. 그리고 소매 단계는 호적제도(농촌 인구는 출생하자마자 농촌호적에 등재되어 도시호적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에 기초한 정량배급제(국영상업기구가 생산자의 출하물을 전량 수매하여 공정가격으로 정량 배급하는 것)가 유통체계의 근간이었다. 즉, 계획경제체제 하의 상해시 농산물 유통체계의 특성은 계획생산, 지정시장 반입, 전량수매·정량배급, 공정가격, 지정분산, 비공개 유통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5-1>.

그러나 계획경제체제하의 집권형 유통체계는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과 인구증가로 그 한계를 노출시키게 되었다. 집권형 유통체계는 청과물의 저가공급 실현과 역내 산지육성 효과는 있었으나, 폐쇄시장 하에서 생산의욕 및 경영의욕 저하, 적자유통에 의한 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계획생산과 통일수매·판매에 의한 생산과 유통의 단절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계획경제 하의 야채의 생산·유통은 “역내생산·역내공급”, “통일수매·통일판매”의 정책으로 농가의 기본적 경영권인 품종선택, 작부체계 결정, 판매방법의 결정이 자유롭지 못해 농가의 창의성과 경영의욕의 저하를 가져왔다. 특히 지령에

표 5-1.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체제하의 상해시 유통체계 비교

| 구분    | 생산단계                                                                                                                      | 도매단계                                                                                                                                                | 소매단계                                                                                                                                   |
|-------|---------------------------------------------------------------------------------------------------------------------------|-----------------------------------------------------------------------------------------------------------------------------------------------------|----------------------------------------------------------------------------------------------------------------------------------------|
| 계획경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공사제도</li> <li>• 계획적 역내 생산·공급</li> <li>• 면적, 품종, 생산량 등의 관리 당국에 의한 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수매·통일판매</li> <li>• 상해시 채소공사 주도형 집권적 유통체계</li> <li>• 지정시장 반입, 공정가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적제도에 의한 배정</li> <li>• 국영·집단소유 채소시장 경유, 가족수에 기초한 정량배급제</li> </ul>                             |
| 시장경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경영 주도</li> <li>• 면적, 산출량, 품종 등 기본의사 결정은 경영주 자유의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소공사 설립 도매시장</li> <li>• 각급행정구역 도매시장</li> <li>• 민영도매시장</li> <li>• 직접거래, 상대가격</li> <li>• 위탁 및 직거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집단소유 야채시장</li> <li>• 집시무역시장(농무시장, 자유시장)</li> <li>• 민영소매시장</li> <li>• 초급시장(수퍼마켓)</li> </ul> |

의한 생산과 계획에 의한 수매 및 판매로 시장에 무관심하고 생산과 유통의 단절 현상과 함께 유통정보의 수집·분석·이용의 필요성이 저하되었다. 시장정보의 결여로 생산계획이 왜곡되고 행정기구의 인위적 결정이 전체 유통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생산량의 전량 수매로 풍작 시 시의 재정지출 부담이 과다하게 되었다. 또한 국영상업 독점에 의한 유통경로의 단일화와 관료적 운영으로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었다.

## 나. 청과물 유통의 재편

상해시로 반입되는 청과물은 상해시 근교에 형성된 40개 정도의 주년산지의 약 300개 이상의 생산대가 담당하고 있다. 주요 지역별로는 상해현(민행구), 가정·보산·천사현(포동신구), 남애현, 청포현,

송강현의 약 10,000ha의 농경지에서 약 100만 톤의 청과물(채소)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주년산지의 외부에는 계절적 성격이 강한 원교산지가 입지하고 역외(성외)산지와 함께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근교산지의 생산 및 경영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였다. 근교산지의 경우 계획경제하에서는 시내 인구유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상해시 인구는 약 600만 명 정도로 유지되어 청과물의 역내 공급체제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개방화 이후 현재 상해시 인구는 약 1,600만 명이나 되고(시내, 교외, 외래 출퇴근 인구) 채소의 총소비량도 약 200만 톤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약 50~55%는 역내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45~50%는 역외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채소 재배면적은 1.2만ha에서 현재 계절적 생산농가를 포함하여 6만ha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근교 주년산지 의존형의 청과물 생산체제가 급속히 붕괴되었다. 포동경제개발 신구를 비롯한 국제 금융·무역도시의 개발사업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근교농지의 택지와 상업용지의 대량전환으로 채소생산자의 이농이 증가하여 야채공급체계의 불안정화를 초래하였다. 근교농지의 전용, 야채생산면적 급감, 농가의 이농, 산지의 원거리 이동, 역내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감소와 역외 채소의 반입증가로 상해시 농산물 유통체계는 역내유통에서 성제유통(省際流通)이라고 하는 광역유통체계가 급속히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상해시는 채소공급을 위해 채람자공정( 신선식료품의 생산과 공급계획)을 추진하여 역내 80%, 역외20% 공급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역외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청과물 유통 체계에 일대 혁신을 초래한 채람자공정은 1987년 상해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된 주요 대도시의 농부식품 공급난과 농촌의 빈곤 해결을 목적으로 한 신선식료품의 생산과 공급계획이다.

채람자공정의 대상 품목은 매일 소비되는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가금, 채소, 어류, 난류 등 6개 부류의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수송망 등의 미 구축으로 채소의 공급원칙인 역내 생산·역내 공급(지역생산·지역소비) 형태에서 도시화의 확장과 인구증가로 수요급증(특히 채소류)으로 인한 수급불일치와 가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특히 채소)의 공산품 생산화가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채소 산지의 원교 이동과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자연의존적 형태에서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채람자공정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도매시장 건설이 급증하였다.

상해시의 채람자공정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제1단계(1987~92)는 농산물 특히 청과물의 충분한 공급을 목표로 하여 수량증대 정책을 추진한 시기이다. 공정실시 후 상해시 채소 수요량의 90%를 담당하게 되었다. 제2단계(1993~2000)는 제1단계에 이어서 충분한 공급물량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품종 다양화, 품질제고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3단계(2001~)는 소비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성향의 급변에 부응하기 위하여 품종 다양화, 품질제고, 소비자 욕구충족, 안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계획경제하의 상해시 청과물유통은 시의 행정관리기구인 동시에 그 자체가 경영조직체인 국영 “상해시채소공사”가 전담하였다. 그러나 1979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체계가 확립·책정됨으로써 청과물 유통체계도 크게 변모하였다. 각종 행정기관급인 공설도매시장의 설립과 함께 각종 민간자본에 의한 민영도매시장도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계획경제하 청과물 공급주체인 상해시 채소공사는 여전히 공설도매시장의 관리주체로서 현재 상해시 청과공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 도입 후 매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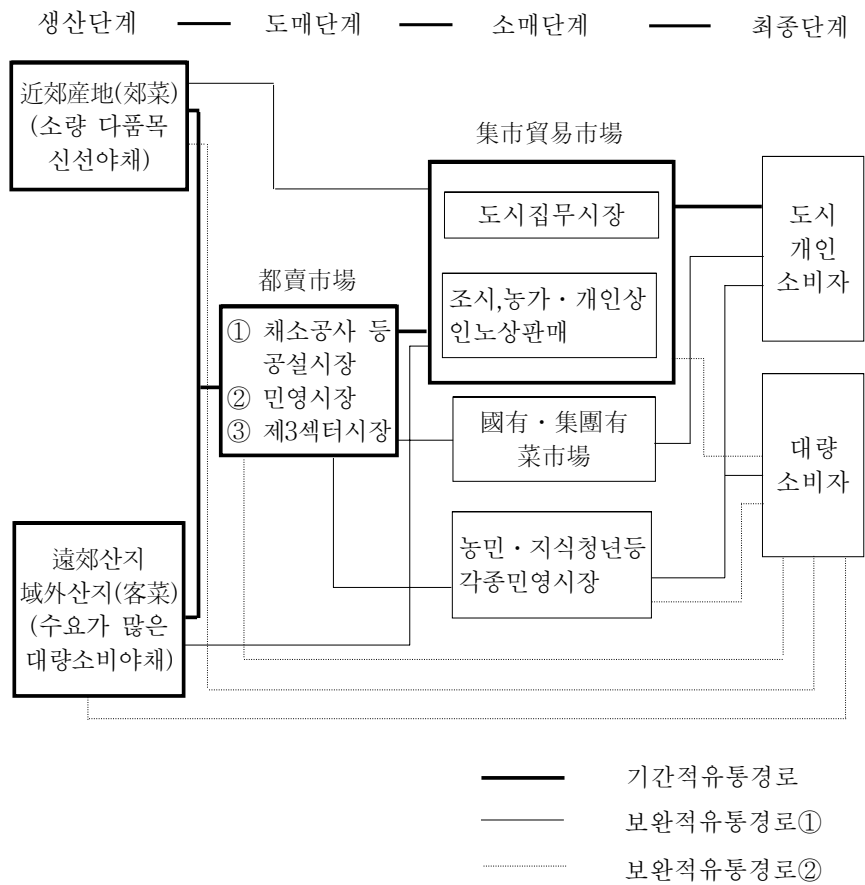
점유율이 증가하는 민영도매시장(민간과 공공의 공동출하에 의한 제3섹터 형태의 시장 포함)이 병존하면서 상해시 청과물 유통체계가 급속히 재 구축되고 있다.

현재 상해시의 청과물 유통은 크게 도매시장 경유와 도매시장 비경유(시장외 유통)로 구분될 수 있다. 민영소매시장인 집시무역시장(集市貿易市場)이 부흥하면서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은 시장의 유통의 새로운 형태가 진전되면서 상해시 유통은 기간유통으로서의 도매시장 유통과 시장 외 유통의 2개의 경로의 유통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유통은 크게 상해시 채소공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설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제3섹터 형태 포함), 국가급 도매시장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이 중 상해시 유통공사가 전체의 약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상해시에는 현재 약 50개 이상의 청과물 도매시장(농산물 전체 약 329개)이 분포되어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 수가 많은 것은 1960~1980년대 도로·교통망 미구축 및 운송수단이 없어 운하를 통하여 운송되었기 때문에 소주강변을 중심으로 대소 도매시장이 난립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해시는 2007년까지 시내에 4개의 대규모 종합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산지에 약 20여 개소의 전문시장과 계절적 시장을 포함한 산지도매시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도매시장은 입지의 불합리, 시설낙후, 거래방식 불합리 등으로 시장경제하 도매시장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상해시는 15, 30, 60분 계획 추진과 함께 도매시장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15분 내 고속도로 도착, 30분 내 시 중심부 도착, 60분 내 상해시 어느 곳에도 도착할 수 있는 종합 교통망 건설 추진에 따라 도매시장을 재편성하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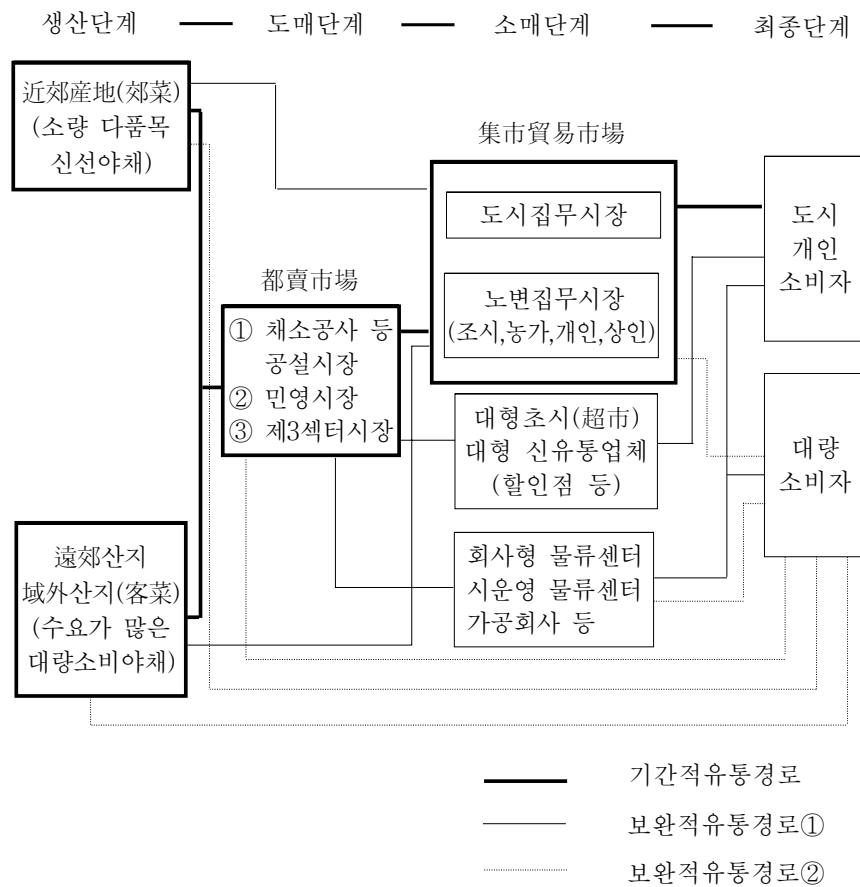
상해시 기존 도매시장은 하나의 거래장소 개념에 불과하며, 자본주의 선진국 도매시장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그림 5-1. 상해시 청과물 유통경로, 1990년대 중반



다. 기존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도매거래를 위한 각종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해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는 초보적인 상적 기능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상해시 일부 국가급 도매시장의 경우 현대적 시장시설과 거래량의 증가로 단순한 거래기능 외에 다양한 상적 및 물류 기능이 수행되는 도매시장도 있다. 이

그림 5-2. 상해시 청과물 유통경로 현황, 2002



와 함께 상해시에는 시장의 유통의 경우 직거래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상해시에서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형태가 시장의 유통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직거래는 주로 산지 수집상회사와 대형초시(슈퍼마켓, 할인점 등), 생산자와 학교급식(대량 수요처), 수집상회사와 물류센터 등과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2. 상해시 청과물 도매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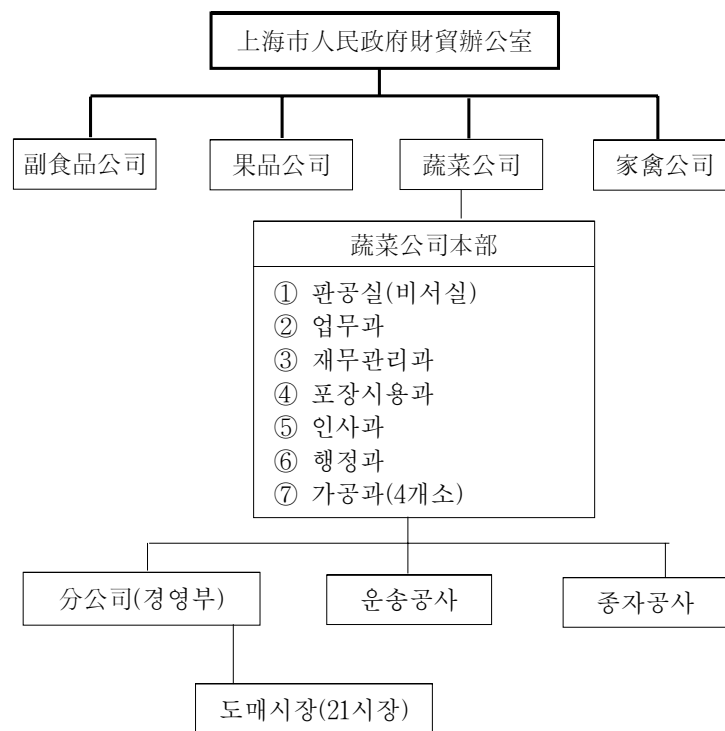
### 가. 도매시장 유통체계

#### 1) 채소공사 공설도매시장

채소공사는 上海市人民政府財貿辦公室(秘書室) 산하기구로 계획경제하에서 상해시 농산물 도매시장과 도매유통을 독점한 유통기구이다. 채소공사의 본부는 인사, 업무계획, 총무 등을 담당하고,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분공사(分公司)가 도매시장을 개설·관리하고 있다<그림 5-3>. 상해시 채소공사의 도매시장은 “소채수구·비발스테이션(蔬菜收購·批發스테이션)으로 불리다가 시장경제 도입 이후에는 교역시장(도매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설도매시장의 건설 투자는 상해시와 국가, 경영은 상해시 산하 국유기업인 상해시 각종 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상해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집하권에 따라 지장유통(地場流通)을 주도하는 지역유통시장(地域流通市場)과 상해시 범위를 벗어나는 성제유통(省際流通: 府縣범위 초과)을 주도하는 광역시장(廣域市場)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상해시 채소공사는 4개의 광역시장(남시장, 북시장, 중산서로 교역시장, 진여 교역시장)과 17개의 지역유통시장 등 총 21개소의 도매시장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다. 4개의 광역시장에서 상해시 부식품교역시장(남시장)과 북시 교역시장(북시장)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건설된 시장이며, 중산서로 교역시장과 진여 교역시장은 개혁개방화 이후 교채(근교에서 생산한 청과물)를 주로 취급하는 지역전담시장에서 객채(원교에서 생산한 청과물)를 주로 취급

그림 5-3. 上海市 蔬菜公司 조직기구도



자료: 俞菊生 외, “市場經濟形成期中國上海市における青果物流通と市場再編”, 『農業市場研究 (4/2)』, 1996.3.

하는 광역시장으로 전환된 시장이다. 광역시장은 대체로 교채보다 객채의 취급비율이 높으며, 지역유통시장은 근교에서 생산된 신선채과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역유통시장은 근교산지의 고정출하와 집하 및 분하의 편리성으로 근교원예산지와 시내와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광역시장은 수송 조건과 연관해서 상해시를 관통하는 강 연안에 입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매시장 반입주체는 개별 생산자, 산지수집상, 수집상회사 등 매

우 다양하다. 개별 생산자는 주로 근교 채소 생산자로서 삼륜차나 자전거 또는 소형 트럭 등을 이용하여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생산자는 관리회사에 자릿세만 지급하면 된다. 산지 수집상은 경기인(經紀人)이라고 불리는 산지상인으로 산지도매시장이나 농가로부터 수집하여 상해시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시장 내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상인이다. 그리고 수집상회사(경기인회사)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 6~7명 정도로 구성된 하나의 회사로서 산지수집, 운송, 판매 전문팀으로 구분하여 유통활동을 전문화하고 있다. 근교 개별 생산자가 도매시장에 직접 반입하는 비중은 감소추세이며, 대부분 산지경기인에 의해 반입되고 있다. 도매시장 반입은 전체의 약 55% 이상이 교체이며, 약 45% 정도가 객채이다. 대부분의 객채는 산동성 채소 주산지로부터 반입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시장의 경우 개별 생산자가 직접 반입하여 도·소매를 하고 있으며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약 50% 정도의 객채가 반입되고 있다.

상해시 채소공사의 도매시장에 집하된 청과물은 규모가 비교적 큰 국유·집단유 및 민영 菜市場(수퍼마켓)과 규모가 비교적 작은 판매점(販賣点)에 분산되며, 여기에는 약 5만 여명의 소매상 위주의 유통종사자가 있다. 또한 집무시장, 초시, 대량수요처, 역외상인 등으로 분산되고 있다. 菜市場과 販賣点是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상해시의 중심구역부에 계획적으로 배치되어 5대 부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계획경제하 가장 중요한 소매유통기구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채시장은 슈퍼마켓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집무시장(집시무역시장, 농무시장, 자유시장) 소매상인의 경우 취급비중의 약 95% 이상을 도매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다. 슈퍼마켓(초시)의 경우 중소형 슈퍼마켓의 대부분이 도매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할인점 중심의 대형초시는 산지 직거래와 도매시장 구매를 병행하고 있다. 그 외 대량수요처에는 식당(외식업체), 학교급식, 병원 등 대량구매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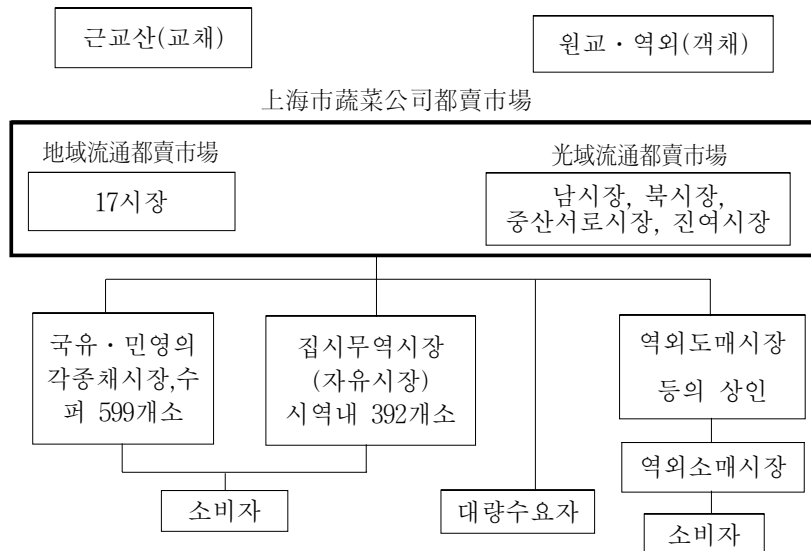
## 2) 민영도매시장 유통체계

개혁개방 후 상해시 청과물 생산과 유통이 자유화되었지만 포동지구 등 도시개발의 확대와 인구의 급증으로 신선농산물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도시확장과 인구증가는 근교농지의 대규모 수용으로 근교야채 주년산지의 급속한 감소현상으로 나타나고, 지금까지의 역내중심 생산과 공급체계는 붕괴되고 역외로부터 객채가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이 같은 광역유통의 전개에 따라 계획경제기에 구축된 상해시 채소공사와 그 관할하의 도매시장과 채시장 중심의 유통체계에 한계가 노출되었다. 따라서 종래의 폐쇄적인 유통체계의 개방과 재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담당자로서 민영도매시장이 출현하게 되었다.

현재 상해시에는 민영도매시장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영도매시장이 曹安路市場이다. 이 시장은 농민경제조직인 長征鄉(현재 長征鎮)과 普陀區工商行政管理局의 공동출자로 1998년에 개설된(상해시에는 구급으로 공상업의 개업허가와 등록 및 그러한 기업의 영업규정 준수사항 등을 감독하는 전문 부국이 있음) 도매시장으로 제3섹터 형식의 도매시장이다. 시장면적은 100畝(20,000평) 정도이며, 시장 내는 600~700개의 점포를 도매상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그리고 거래동 내의 점포외에 건물가 무점포 좌판 형태의 매대가 약 300~400개가 있다. 전체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고정상가의 비율이 60~70%이며, 임시좌판점포가 30~40% 정도이다.

조안로 농부산물도매시장의 주요 취급 품목은 쌀, 채소, 육류, 가금류, 난류, 수산물, 기타 공산품 등으로 종합도매시장이다. 시장건물은 부류별로 총 6개의 거래동이 있으며, 각 거래동의 경우 상품특성에 따라 점포가 구분되어 있다. 점포는 육류의 경우 매대형식, 곡물류의 경우 칸막이 점포, 채소류의 경우 칸막이가 없는 형태 등으로

그림 5-4. 상해시 채소공사 경유 야채유통 개요



자료: 俞菊生 외, “市場經濟形成期中國上海市における青果物流通と市場再編”, 『農業市場研究 (4/2)』, 1996.3.

부류별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점포의 평균면적은 18㎡ 정도이며, 50㎡ 이상의 규모가 큰 점포도 있다. 시장 내 주요시설은 거래동과 관리사무소외는 없으며,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물류시설은 없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에서 물류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상적 기능인 거래 기능이 거의 전부이다. 단지 육류점포의 경우 냉장고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인들은 냉동고를 1대씩 보유하고 있다.

시장 내 반입은 청과물의 경우 대부분 산지수집상(개별경기인, 경기인회사, 전송중개상 등)이며, 일부 근교농가의 경우 직접 반입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매우 낮다. 경기인회나 전송중개인의 경우 대부분

시장 내 도매상과 같은 회사의 팀으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 내 거래는 산지수집상이나 개별중개인이 반입하여 직접 판매하기도 하며, 동일한 회사의 판매팀인 시장 내 도매점포에 넘기기도 한다. 또한 근교 농가의 경우 개별적으로 반입하여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시장 내 점포가 없는 개별수집상이나 개별 농가의 경우 시장으로 반입하여 일정한 위치에 장소를 잡아 반입한 물량을 다 판매할 때까지 시장 내에 머물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1일 자릿세는 50위안 정도이다.

거래방법은 상대거래이며, 가격결정은 합의가격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가격은 대부분의 상품이 근(500g)단위로 판매되고 있어 등급을 반영한 가격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점포에는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가 없으며, 상품은 산물 형태로 적재되어 판매되고 있다. 거래는 도매와 소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거래량에 따라 구분된다. 거래량이 많으면 도매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소매로 인정하여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저녁에는 주로 기업단체, 학교, 군, 요식업체, 농무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주로 도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낮에는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 내 도매상인수는 600~700명이며, 소매상인을 합하여 전체 약 1,000명 이상이 중간상인 상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시장 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대부분 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에는 산지수집담당, 운송담당, 판매담당 등 대체로 6~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 내 상인은 회사로부터 판매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회사는 임대료를 받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임대료는 점포나 매대 면적에 따라 상이하며, 거래동 내 점포와 좌판점포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도매시장 사용료는 시장 내 고정점포나 좌판의 경우 계약을 통하

여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형식이다. 그리고 상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 시 전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총거래액을 추정하여 거래액의 5% 정도를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품목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구매자의 경우 소매구입자와 기업단체구매자에게는 무료이며, 식당이나 상인이 구매할 경우 1회 거래에 거래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2위안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구매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구매할 경우 별도의 주차료는 없다. 이 시장은 날로 증가하는 객채를 주로 취급하는 광역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현재 상해시의 신선야채 총 수요량의 20%에 상당하는 매일 500톤 정도의 채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80%는 객채이며, 20%는 교채(郊菜)이다. 상해시 채소공사 소속의 도매시장이 청과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것과는 달리 이 시장은 매일 약 200톤 이상의 곡물을 취급하고 있다.

시장관리사무소의 임무는 점포계약 및 임대료 징수, 자릿세 및 입장료 징수, 안전 및 위생, 청소, 경비, 통계, 회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거래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현재 이 시장의 관리사무소 인원은 약 400명 정도임이다. 거래 관련 통계는 상품 반입 시 정문에서 관리사무소 요원이 눈으로 목측을 하여 보고하는 수준이다. 관리사무소의 위생·안전성 검사는 매일 엽채류 중심으로 샘플을 30개 정도를 수거하여 주로 약식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기준치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관리사무소가 퇴출이나 폐기명령은 발동할 수 없지만 2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시 검역당국에 회부하여 출하금지 또는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상해시 민영도매시장에는 조안로시장을 포함하여 광역유통시장이 5개정도 있는데, 역내중·원교산지의 채소를 주로 취급하는 지역유통시장의 개설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주로 각종 농민경제조직이 독자적으로 개설한 농번비발시장(農弁批發市場)이라고 불리는

도매시장으로 현재 10개 이상이 있다. 상해시에는 이 같은 유통자유화와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매시장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통체계의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 3) 국가 중앙도매시장

상해시 청과물 유통의 개방과 재편 과정에서 민영도매시장과 함께 중요한 것은 중앙도매시장 개설 계획이었다. 상해시가 채랍자공정의 일환으로 투자하여 건설한 현대적 도매시장이다. 그 중 하나가 상해시 강교도매시장(江橋都賣市場)으로 1994년 10월 개장되었다. 이 시장이 완성되면 그 면적은 30ha나 되지만, 현재까지 완성된 면적은 10ha이며, 이 중 건물면적은 24,000㎡, 청과동 면적은 13,000㎡, 완공시 가공식품 6,600㎡, 사무관리동 2,000㎡이다. 거래량은 연간 3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장은 관리와 경영이 분리되었으며, 시장개설자인 상해시는 시장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시장투자자인 상해시채소공사, 상해시상업투자공사, 上海市聯農柱式有限公司的 3주체로 구성된 取締會가 시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시장은 출입상인(시장이용상인)으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및 시장시설이용료 등으로 직원의 임금과 운영경비를 조달한다. 시장위치는 교통요인을 고려하여 편리한 국도변에 선정하였으나 개장이후 거래가 부진하여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였다. 현재는 지속적인 적자경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강교도매시장과 함께 국가급 도매시장으로 상해농산물중심도매장이 있다. 이 시장은 상해시가 1990년대 채랍자 공정의 일환으로 외국의 선진 유통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중앙도매시장으로 건설하여 광역도매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는 상해시가 출연한 약 6,400만 위안(1,040억 원)과 미리 확보한 임대료 수입을 합하여 약 1.2억 위안(192억 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와 민간이 합작투자한 제3섹

터 형태이다. 1992년 포동지구 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도매시장 건설 조건이 좋아지자 1996년 건설을 시작하여 1998년에 개장하였다. 이 시장은 베이징, 광둥, 해남, 성도 도매시장과 함께 전국 5대 국가급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되었다.

시장건설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는 1996년에 착공하여 1998년에 시장부지 178무(35,600평)로 개장하였으며, 2단계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500무(100,000평)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규모는 시멘트바닥에 컨테이너 형태의 건물 연면적 4만㎡(12,120평), 콘센트 형태의 건물 3만㎡(9,090평)이며, 건물은 채소동, 육류동, 과일동, 가금동, 조미료동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 내 접포는 칸막이나 철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채소류는 칸막이가 없이 단순히 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장은 상해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상해농부산물중심도매시장유한공사)에 의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회사는 상해시 투자액인 6,500만 위안에 대한 수익금의 일정액을 상해시에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관리는 상해시 국유재산관리국에서 관리함으로써 시장의 관리와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상해시의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금은 채람자공정의 일환으로 다시 시장시설 확대, 시장관리, 시장 내 식품안전성 강화, 품질검사 등을 위해 재투자되고 있다. 특히 상해시는 2002년 3월 국무원으로부터 하달된 국가급 중앙도매시장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인 산지 포장규격화 강화, 식품안전성 강화, 품질검사 강화, 유통정보 전산화, 산지의 규모화·전문화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시장의 1일 거래량은 1,500톤으로 가락동 도매시장의 20% 수준이며, 부류별로 보면 채소 800톤, 과일 150톤, 양유 150~200톤, 가금 3만수, 돈육 1,800두이다. 거래액은 연간 8~10억원 정도로 추정(2001년 7억 위안, 2002년 약 10억 위안 예상)된다. 시장의 곡물과 채소동

은 대체로 오전 10시에 개장하여 오후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수산물과 육류등은 24시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품목은 채소류, 육류, 가금류, 식용유, 식량, 과일류 등이며, 부류별 1일 거래량은 채소류 800~1,000톤, 돼지고기 2,000두, 가금류 3만수, 식량·과일·식용유 약 500톤 정도이다. 거래방식은 상대매매이며, 가격결정은 매매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합의가격(홍정가격)이다.

시장 내 상인 수는 약 3,000명 정도이며 이 중 고정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 수는 약 600명이며, 무점포 상인은 약 2,400명 정도이다. 시장 내 거래형태는 거래물량에 따라 도매와 소매로 구분되어 가격도 차이가 나고 있다. 거래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도매로 인정되어 가격이 할인되고 있으며, 거래물량이 소량이면 소매로 인정되어 도매거래에 비해 약 10~20% 이상 높게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쌀의 경우 500g 1근당 도매가격은 0.9위안 정도이며, 소매가격은 1.1위안 정도이다. 도매의 경우 그 대상은 대부분 농무시장 상인, 슈퍼마켓, 식당, 학교급식, 병원, 군인 등 대량수요자이며, 소매의 경우 대부분 인근 일반 소비자들이다.

운영회사는 시장 내 고정점포와 무점포 좌판상에 대해 계약을 통해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대체로 1년 단위이며, 상인이 원할 경우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는 점포면적, 위치,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점포는 칸막이로 구분되고 있으며, 점포면적은 16㎡, 24㎡, 32㎡의 3가지가 있다. 임대료는 점포면적, 점포위치, 취급 품목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면적이 큰 점포의 임대료는 연간 3~4만 위안 수준이며, 작은 규모의 경우 1~2만 위안 수준이다. 취급 품목별로 보면 거래단가가 높은 수산물이나 축산물 점포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곡물, 채소류 등은 낮다. 그 리고 시장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상인 외 인근 생산자 등과 같이 상품을 반입할 때마다 시장이용료를 지불하는 무점포 상인도 있다. 시장이

용료는 상품반입 시 정문에서 전날 또는 일정 시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거래액을 산출한 다음, 예상거래액의 5%가 징수되고 있다.

시장 내 상품진열 및 판매는 채소류의 경우 점포 내에 산물 형태로 적재되어 무게단위로 판매되고 있으며, 곡물의 경우 대부분 10~15kg 포대에 담겨져 판매되고 있다. 곡물은 도매거래의 경우 포대단위로 판매되고, 소매거래에서는 근(500g)당으로 판매되고 있다. 육류의 경우 점포내에 냉동고 설치가 필수적이며, 판매는 점포주인이 직접 현장에서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대형 도마 위에서 절단하여 무게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금류의 경우 닭, 오리 등의 생축을 우리에 넣어서 생축 상태로 판매하거나,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도계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과일류의 경우 산물과 상자반입 형태가 있으며, 판매는 상자나 무게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시설은 단순히 부류별 거래동 외는 없으며, 특히 저온저장창고 등을 비롯한 물류시설이 거의 없어 상품이 반입되어 판매가 완료되는 기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장 내 상품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돼지고기 등 육류의 경우 점포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점포 내에 반드시 냉동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도매시장 내에서 상인들의 선별·가공·포장·저장 등의 물류기능은 전혀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반입된 상품을 원형 그대로 일정액의 마진만 붙이는 상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주요기능은 단순 거래 위주의 상적 기능이 대부분이며, 그 외 유통정보, 금융 등의 상적 기능과 다양한 물류기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 반입상품의 형태는 채소류는 대부분 산물형태나 엽채류 등의 경우 단 형태로 차량이나 수레에 의해 반입되고 있으며, 곡물의 경우 포대에 담거나 대형 용기에 산물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 과일류는 대체로 박스형태와 산물형태의 반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박스형태의 반입은 규격포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포장표기, 포장재,

포장 디자인 등에서 초보적인 포장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일류 박스포장의 가장 일반적인 규격은 5kg이며, 그 외 10kg 등 다양한 규격이 있으나 규격포장은 아니다. 껍은 망으로 포장되어 반입되며, 수박 등은 대형 대나무 광주리에 담겨 반입되고 있다.

유통회사의 시장업무는 회계, 안전성검사, 위생·청소 등 대부분 거래와는 무관하며, 약 300여 명의 인원이 고용되어 있다. 유통회사가 거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래시 분쟁을 막고 공정거래를 위한 대형 저울을 비치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안전성 검사는 매일 20개의 샘플을 검사하고 있으며, 불합격 시에는 민영도매시장과는 달리 현장에서 모두 폐기처분되고 있다.

## 나. 유통체계 특성 및 문제점

1991년 말 청과물시장의 개방과 함께 상해시에는 인근 산지가 아닌 원거리 다른 성으로부터 반입되는 객채(客菜)의 반입이 급증되었다. 그러나 상해시의 농산물 유통통계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상해시의 청과물 반입·반출량의 통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해시 역내에서 생산된 가채(家菜)의 유통실태에 대해 상해시 채소공사의 통계로 사전에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연간 채소의 유통량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상해시 채소공사의 통계를 토대로 하면 상해시 역내 생산량은 약 100만 톤 정도이며, 이 중 약 70%가 상해시 채소공사 산하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민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상해시에 공급되는 총채소량은 약 200만 톤이며, 이 중 역외에서 생산되는 객채(客菜)의 반입량은 약 90만~100만 톤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 역외에서 반입된 야채는 4개의 광역도매시장과 각종 민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매 단계에서의 채소유통은 상해시 채소공사의 독점체제에서 민영도매시장을 포함한 다원적 유통체제로 변화

되었다.

소매단계에서도 계획경제기에 야채의 소매를 독점한 국유·집단 채시장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저하하고 있으며, 반면 시장경제의 도입과 함께 각종 집시무역시장의 야채 유통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집무시장의 소매유통비율은 약 70~8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상해시는 신선농산물의 거대한 소비시장임과 동시에 전국의 중계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해 시장에서 역외로 반출되는 청과 물량이 1992년의 경우 6,000톤에 불과하지만 그 후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다.

표 5-2. 상해시 채소 소매거래량과 집무시장 소매량

| 연 도  | 총소매거래량(만톤) | 집시무역시장의<br>거래수량(톤) |
|------|------------|--------------------|
| 1978 | 115.30     | -                  |
| 1979 | 103.85     | -                  |
| 1980 | 99.25      | 111,281(11.1)      |
| 1981 | 106.53     | -                  |
| 1982 | 117.20     | -                  |
| 1983 | 101.80     | -                  |
| 1984 | 108.25     | -                  |
| 1985 | 105.04     | 188,958(18.0)      |
| 1986 | 111.82     | -                  |
| 1987 | 114.37     | -                  |
| 1988 | 113.60     | -                  |
| 1989 | 117.03     | -                  |
| 1990 | 119.21     | 525,897(44.1)      |
| 1991 | 111.85     | 550,948(49.3)      |

주: 1) ( ) 안의 수치는 소매 총수량에서 차지하는 집시무역시장의 구성비임.  
2) 「-」는 데이터가 없는 것을 표시함.

현재 상해시 농산물 도매유통체계의 특성을 보면 먼저 공·사의 각종 도매시장의 자유로운 창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민영 도매유통기구의 증가로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유통기구의 다양화와 유통경로의 다원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상해시 도매유통체계는 선진국 도매유통체계에 비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낙후되고 발전 초기 단계에 있지만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지의 입장에서 자출출하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산지 상인들에 의한 다양한 거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비시장과 산지와의 연계 강화와 유통경로의 다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도매유통에서 상해시 유통환경의 급변으로 도매시장 유통 외에 시장 외 유통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매유통에서 거래방식도 상대거래 중심에서 위탁판매방식 등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도매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구매자의 자유로운 시장선택이 가능하며, 자유로운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해시는 1979년 개혁개방 직후에는 청과물 총소비량의 80% 이상이 여전히 계획생산·유통체계로 유지되었으나, 1991년부터 청과물 유통의 기본구도가 시장경제화 되고 가격도 자유화되었다. 현재 단경기 가격폭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생산량의 약 10% 정도만 계약생산체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자유시장 유통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상해시의 대대적인 지역개발 사업 등과 연관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 근교 주년산지 의존형 청과물 생산체계의 급속한 붕괴에 따른 역내 농업기반의 위축이다. 포동경제개발구를 비롯한 국제금융·무역도시로의 개발사업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상해시 근교농지가 택지와 상업용지로 대규모로 전환되어 채소생산자의 이농이 증가하고 야채공급체계의 불안정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영규모의 영세화 문제이다. 인민공사의 해체와 함께 개별

농가 경영처부제 또는 생산책임청부제(生産責任請負制)가 도입됨에 따라 생산규모의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유통단계에서 불합리한 유통 및 지역간·시장간에 발생하는 유통물량의 수급불균형 문제이다. 시장자유화 이후 상해시 청과물유통은 각종 민영도매시장의 건설·운영으로 인해 상해시 채소공사에 의한 지금까지의 독점적 유통체계가 붕괴되고 새로운 전환기하에서 각 유통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유통 및 지역간·시장간 유통물량의 심각한 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각종 시장의 난립으로 대부분의 시장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부적절한 시장입지, 과다한 시장건설, 체계적 시장관리의 미흡 등으로 전체 도매유통체계가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재정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비규범화에 따른 거래 및 시장질서 문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상품의 비규격화에 따른 유통효율성 저하, 시장시설의 미흡과 낙후성에 따른 시장기능 저하, 유통정보체계 미확립으로 유통참여자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시장 거래제도의 미정비 및 상업신용 문제 대두 등이다.

### 3. 상해시 청과물 소매유통

#### 가. 소매유통체계 변화

상해시 채소 유통경로는 도매단계의 경우 상해시 채소공사의 공설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것과 제3섹터 시장을 경유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산지 농민이 스스로 개설한 민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것이 있

다. 상해시의 2000년 부류별 도매시장 경유율은 전체농산물의 경우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류별 도매시장 경유율은 채소 92%, 과일 90%, 육류 56%, 수산물 64%이며, 객채의 경우 100%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매단계에서는 도매단계에 대응하여 집시무역시장, 일부 국유·집단 채시장, 각종 슈퍼마켓, 대형 유통업체 등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다. 그러나 일부 업태를 제외하면 상해시 소매기구의 대부분이 영세하다. 2000년 상해시 채소 연간 소매거래량은 약 180~200만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것을 유통기구별로 보면 집시무역시장 80%, 슈퍼마켓 15%, 농민채시장과 생산자직판 5%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상해시 소매유통기구는 크게 집시무역시장, 슈퍼마켓, 채시장 등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채시장의 경우 국유·집단 채시장과 농민채시장이 있다. 먼저 국유·집단 채시장은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채소의 소매유통을 독점한 가장 주요한 소매기구였으나 개혁개방화 이후 집시무역시장 수가 증가함으로써 취급비중과 시장 수가 급감하였으며, 대부분 슈퍼마켓으로 업태전환을 하였다. 1980년 상해시 집시무역시장수는 342개소에서 1994년에는 482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채소 취급량도 1980년 110,281톤에서 1994년 550,948톤으로 급증하였다. 채소유통에서 집시무역시장의 유통기능은 1990년대 초기 시장조절과 보완적 기능에서 현재 소매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소매기구로 전환되었다. 현재 상해시의 소매유통에서 집시무역시장의 점유비율은 청과물의 경우 약 8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 채시장은 집무시장 및 국·집단 채시장 유통의 보조적 경로였으나 현재 일부 교외지역에 명맥을 이어 가고 있을 뿐이다.

## 나. 소매유통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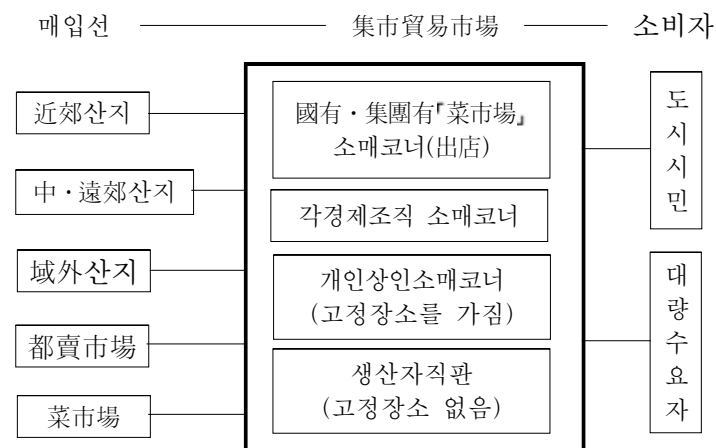
### 1) 집시무역시장

집시무역시장(농무시장, 자유시장, 집무시장)은 주로 상해시 내부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400여 개의 시장이 있다. 집무시장은 대부분 상해시가 개설하였으나 개혁개방화 이후 지속적인 민영화를 추진으로 현재 대부분 민간회사가 경영주체이다. 예를 들면 상해시 태양소비품종합시장의 경우 처음에는 상해시 공상국에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9명의 민간인이 합작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다. 집무시장은 크게 상가건물 형태로 개설된 시장과 노천 등에 임시로 개설된 시장이 있으나, 2000년부터 노변 임시시장이 정리되어 현재 대부분의 시장이 상가형태이다. 특히 도시화의 확장과 신규주택지 등의 개발로 아파트단지 등 대규모 주거단지를 건설할 경우 시장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있으며, 건설 후 개인에게 임대하여 주로 개인이 시장 경영주체가 되고 있다.

현재 상해시 농산물 소매유통기구의 두 축인 집무시장과 초시(超市)의 거래량은 약 80%와 2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집무시장에는 약 10만 여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인들이 취급하는 농산물의 95% 이상은 도매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시무역시장에서는 역내산지 외에 역외산지의 농산물도 취급하고 있다. 시장 내 상인은 생산자 직판상인과 각종 고정소매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상해시 서부지역 仙霞新村에 있는 “仙霞農副産物集市貿易市場”을 예로 들면 시장 내 소매상인은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역내 근교생산자로서 주로 근교산 신선채소(주로 엽채류)를 취급하고 있다. 둘째는 주로 수산물, 과일, 일용잡화품 등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대부분은

그림 5-5. 상해시 집시무역시장의 유통구조



주: 1) 상해시는 시가지와 교외부의 인접지역을 근교로 하고 그 외는 농촌지대를 중·원교로 함.

2) 상해시 범위의 외의 산지는 「역외산지」로 함.

시내의 주민이다. 셋째는 외성 농민상인으로서 주로 과채류, 근채류, 육류, 쌀, 기타 곡물류를 판매하는 상인이다. 그리고 시장에는 약 600개의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대는 고정매대와 이동매대의 두 종류가 있다. 고정매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해시 상공행정관리기가 발행하는 영업증명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주로 수산물, 가금류, 육류, 근채류 등이 판매된다. 그리고 이동매대의 경우 대부분 근교 생산자들이 반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집무시장의 가격은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신선고품질의 동일상품은 국유 채시장보다 약 20% 정도 높게 판매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년퇴직자를 고용하여 시장질서 및 치안, 임대료 징수,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의 운영질서 등 제규칙은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제정한 ‘城鄉集市貿易管理方法’에 준하여 이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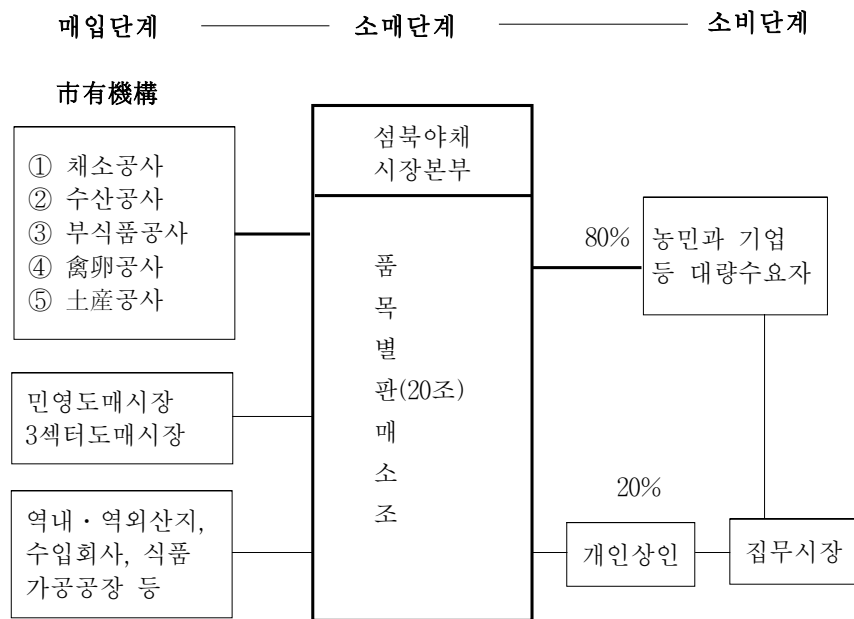
고 있다. 집무시장의 기본 운영 형태는 운영회사가 개별 입주상인과 계약을 맺어 임대료를 받는 임대운영 방식이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 입지조건, 취급 품목, 매대 위치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상해시 중심의 상해태양소비품종합시장의 경우 가로, 세로 각각 1.8m 정도의 매대 1개에 월 300~1,000위안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임대료 수준은 운영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상인의 세금납부는 채소상인 외에는 한 달 평균 약 100위안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 2) 채시장과 슈퍼마켓

소매시장의 유통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계획경제하에서 소매유통의 핵심기구인 국유·집단 채시장이 대부분 슈퍼체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채시장은 계획경제하에서 중요한 유통기구로 소규모 소매시장 형태이며, 1990년대 초 상해시에는 약 200개소가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 슈퍼마켓으로 전환되었다. 상해시의 신선청과물 유통은 실질적으로 1991년 자유화됨에 따라 국유·집단 채시장은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우선 기업경영체제의 개혁으로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고, 독립채산제의 도입으로 완전한 기업체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소비자의 소득수준 증가와 함께 소비의 다양화·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업범위가 확대되고 서비스 방법이 변화되면서 각종 채시장들이 소매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슈퍼마켓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상해시의 슈퍼마켓은 대부분 1990년대 초에 개설되었으며, 그들의 일부는 국유·집단유 채시장을 개조하여 개설된 종합 슈퍼마켓으로 현재 상해시에는 1,500개 이상의 초시가 개설되었으며,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발 슈퍼를 통합하는 集團公司의 창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해시내 八仙橋菜場과 陝北菜場의 2개 채시장은 국유·집단 채시장을 개조하여 종합 슈퍼마켓을

그림 5-6. 陝北소매그룹의 상품 매입선과 판매선



개설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팔선교채장은 1994년 영업면적 1,600㎡ 내에 147㎡의 셀프서비스형 슈퍼형태를 시험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같은 새로운 판매방식은 예상 외의 집객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팔선교채장은 슈퍼마켓의 영업면적을 확대하고 1995년에는 전체 면적의 75%를 슈퍼마켓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전체가 슈퍼마켓으로 전환되었다.

팔선교채장과 섬북채장은 (현재는 팔선교부식품상장과 섬북초시로 명칭변경)상해시내에 위치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표적인 국유·집단 소매기구였다. 급격한 슈퍼마켓화의 진전 과정에서 국유·집단 소매업은 사회적 신용과 높은 자금 조달력의 우위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슈퍼체인점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팔선교채장의 상

부조직인 八仙集團公司是 1994년에 超市公司를 설립하고, 1995년 슈퍼점포를 21개소 개설하였다. 1996년에는 1,000만원을 투입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동시에 집배송 센터를 정비하고 일괄 구매와 점포배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취급 상품도 채시장이었던 때는 육류, 가금·난류, 야채, 두제품, 수산물 등 신선농수산물만 취급하였으나 현재 가공식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포함하여 약 1만여 품목을 취급하는 종합 슈퍼마켓으로 전환된 것이다.

상해시의 슈퍼마켓은 신선식료품의 규격화, 포장화 등에 수반되는 가격 상승의 문제 등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상해시에는 현재 주요한 기업집단(그룹)을 중심으로 초시그룹이 대부분의 슈퍼마켓을 체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초시집단은 연화(聯華) 및 화련(華聯)그룹으로 각각 중소형 슈퍼마켓과 대형할인점을 포함하여 현재 약 1,000개 이상의 초시를 운영하고 있다. 상해시에는 현재 매장 면적 10,000㎡ 이상의 대형 초시가 5개 있으며, 3,000㎡ 이상의 초시가 200여 개가 있다. 전체 초시 중 약 30% 이상이 매장면적 3,000㎡ 이상의 중대형 점포로 나타나고 있다. 農工商그룹의 경우 약 200개의 슈퍼마켓과 400개소의 편의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해시에 약 150개 이상의 중대형 슈퍼마켓과 5개의 대규모 초시 및 약 30개 정도의 중대형 초시를 체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해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해농공상초시의 경우 1994년에 개장하였으며, 2001년 총매출액은 75억 위안(1조 2천억 원)이며, 2002년에는 100억 위안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총매출액 중 농산물의 비중은 약 25~30%를 차지하고 있다.

초시(슈퍼마켓)의 주요 구매처는 자체기업 그룹이 소유한 농장으로부터의 직구매, 산지농가와의 계약재배, 산지가공회사와의 계약, 도매시장, 수입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지가공회사의 경우 산지 경기인들이 조직한 회사와 계약을 맺어 초시에서 원하는 형

태의 규격과 포장으로 납품하고 있어 일종의 벤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초시(슈퍼마켓)에서 거래되는 신선농산물은 대부분 포장되어 반입되고 있으며, 판매는 도매시장이나 농무시장에서 근(500g) 단위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박스단위, 묶음단위, 소포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초시그룹인 연화, 화련, 농공상그룹 등은 대부분 자체적인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물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초시에서 신선농산물이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신선농산물은 한국의 경우 할인점이라고 불리는 대형 점포에서만 거래되고 있다.

슈퍼마켓의 농산물은 대체로 상품 종류가 집무시장보다 다양하지 못하며, 신선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신선농산물의 소매비중이 여전히 크지 못하다. 농공상초시 그룹의 경우 자체적으로 잔류농약, 오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상해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검사실과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검사요원들을 고용하여 시험과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는 구매단계, 점포 내 샘플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외 중·외 합작의 외국 유통기업이 진입하여 주로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약 20여 개의 초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소매기구의 업태와는 상관없이 대규모 할인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슈퍼센터 등을 모두 초시라고 부르고 있다. 상해시의 초시는 매장면적 300㎡ 이상이 되면 개설허가가 나기 때문에 소규모 초시에서 외국의 대규모 할인점까지 매우 다양하다.

초시 취급 청과물의 구매지역은 대체로 상해시(역내), 외성(역외) 및 국외의 3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체 취급량의 80~90%는 郊菜이며, 나머지는 客菜로 나타나고 있다. 육류의 경우 약 80%는 외성으로부터 반입되고 약 20%는 역내에서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수산

물의 경우 생선은 역내가 대부분이며, 냉동물은 외성으로부터 반입되고 있다. 신선 청과물은 거의 수입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수입 식료품은 과자류, 담배, 사탕 등 가공식품 등이다. 초시의 주요 구매선은 도매시장, 가공공장, 수입회사 및 산지 등이며, 가장 중요한 구매선은 도매시장이다. 채소의 경우 구입선은 상해시채소공사 소속의 도매시장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민영도매시장과 산지와의 계약재배에 의한 산지 직구입 등이 있다. 초시의 판매처는 80% 이상이 일반소비자이며, 그 외 식당 등 대규모 수요자 등이 있다.

유통자유화 후 상해시 농산물 소매가격은 수급에 기초하여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정기구가 가격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신선농산물에 대해 최고제한 소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시장과 슈퍼마켓은 제한 소매가격 범위 내에서 수급상황에 반영하는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 3) 농민 채시장

농민 채시장의 대부분은 시가지와 교외의 결합부인 신주택 단지에 자리잡고 있다. 신주택지역에는 국유 채시장이 거의 없고 집시무역시장도 거의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같이 국유 채시장이나 집시무역시장과 같은 소매시장의 개설이 어려운 도시 주변부에 향농부업공사 및 촌·생산대 등의 농민생산경제조직이 스스로 소매시장을 개설한 것이 농민 채시장이다. 상해시는 농산물 유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농민단체 조직이 채시장을 개설할 경우 토지임대료와 세금 감면조치를 취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였다. 1994년 상해시에는 11개소의 농민 채시장이 개설되었으나 현재 그 수가 크게 감소하여 실질적인 소매시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집무시장과 슈퍼마켓의 급속한 확장으로 농민 채시장의 기능의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농민 채시장의 주요 취급 품목은 도매시장, 국유·집단 채시장 등과 같은

중간유통기구를 경유한 신선채소, 어류, 육류 등이다.

상해시에 개설된 농민 채시장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농민경제조직이 독자적으로 자본금을 조달하고 경영하는 채시장이다. 둘째는 농민경제조직과 개설지의 街道委員會 등과의 2자 공동경영형태이다. 셋째는 복수회사에 의한 공동경영형태이다. 넷째는 국유·집단 채시장의 일부에 임대하여 들어가 농민이 생산한 야채를 직접 판매하는 형태이다.

농민 채시장은 대부분 직판이라는 방식을 채용하여 유통과 생산의 쌍방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생산자가 채시장에서 직접 야채를 판매하는 것으로 시장의 수급사정을 완전히 파악하여 자기의 재배품목, 면적, 수량, 파종기 등의 조정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새로 개발된 주택지역의 채소판매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채소 소매기구간의 경쟁의식을 높이고 서비스의 향상의 가져왔다. 그러나 농민 채시장은 경영과 관리의 노하우가 미숙하여 수익성이 낮으며, 농민의 자금조달 능력이 한계가 있어 일부 채시장의 시설은 간이시설로 되어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4. 상해시 청과물 산지유통

### 가. 산지 유통기구

상해시 산지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지 유통기구는 생산자가 아니며, 산지중개인 또는 산지수집상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인(經紀人)이다. 경기인은 산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수집상과 중개상 역할을 수행하며, 경기인 조직은 개별경기인 형태에서 각종 회사형태까지 다양하다. 산지에서 개별 생산자는 영세하

고 조직화되지 못하여 단지 농산물을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농산물의 수집, 가공, 상품화, 출하 등의 유통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생산자의 농산물을 구매하여 대도시 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가공하는 유통기구가 경기인이다.

경기인은 개별 경기인과 경기인 조직으로 구분되지만 많은 경기인들은 사업목적에 따라 회사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인의 활동은 중개, 수집, 가공, 배송, 전송, 수출 등 매우 다양하다. 산지 경기인들의 조직형태는 품목별 연합회, 경기인물류센터, 경기인협회, 농산물배송회사(예: 파일농부산물배송유한공사) 등과 같은 이름으로 주로 회사(유한공사) 형태의 조직체이다. 이들 조직은 부류별 또는 품목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상해시에 가장 많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근교 봉현구의 경우 회사 형태의 각종 경기인 조직은 현재 128개가 있으며, 개별 경기인의 경우 약 5,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인의 소득은 생산자보다 수익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경기인 또는 경기인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경기인 회사의 취급규모는 5명의 개별 경기인으로 조직된 봉현구의 파일농산물물류센터의 경우 평균 약 800만위안(약 12억 5천만 원)으로 경기인 1인당 연간 취급규모는 2001년 평균 2억 5천만 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 경기인의 경우 거래규모나 취급규모에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인은 산지와 산지시장을 순회하면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소비지 도매시장의 도매상에게 넘기거나 도매시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고 적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수료 상인조직도 있으며, 구매한 농산물을 그들의 선별장 또는 물류센터에서 소분포장·가공하여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납품하는 벤더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기

인 조직의 기능은 산지에서 농가와 산지시장을 순회하면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상해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기능이다. 이 경우 경기인 조직의 산지기능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산지에서 수집한 농산물에 대해 선별·등급화·포장·가공 등의 처리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원형농산물 그대로 출하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수집한 농산물을 그들의 선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선별·등급화·포장 등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출하하는 형태이다.

대도시 소비지의 소매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경기인 조직들이 점차 자체 선별장이나 물류센터를 보유하여 산지에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지의 경우 생산·유통·가공·저장 분야의 비효율적 연계로 산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없어 산지와 소비지가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산지의 출하상품 중 경기인의 선별장이나 물류센터에서 선별, 등급화, 포장, 출하 등 일련의 상품화 과정을 거치는 비중은 전체의 약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원형의 산물형태 소비지로 운송되고 있다.

경기인 조직은 일반적으로 산지수집, 운송, 판매 전문팀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집방법은 채소류는 대량의 경우 농가가 농가부근의 일정 장소까지 운반하면 경기인이 순회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소량의 경우 농가가 직접 경기인 회사까지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경기인이 직접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회사소속의 경기인은 크게 사무직과 기능직으로 구분되며, 기능직의 경우 수집, 운송, 판매직 등이 있다. 관리직은 대부분 월급제이며, 기능직의 경우 수집·운송·판매량 등 취급실적에 따라 수익이 배분되고 있다. 경기인은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계절적으로 경기인 기능을 수행하는 계절적 지역경기인과 소비지 전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경기인이 있다. 전문경기인의 경우 전체 산지경기인의 약 20% 내외로 대부분 도시 도매시장 내에 판매대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판매, 수집, 운송 전문팀이 각자 따로 있다. 그리고 개별 경기인의 경우 산지에서 수매하여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회사 형태의 경기인 조직과는 달리 개별경기인의 경우 조직화가 안된 개별상인으로 개별 경기인이 산지에서 직접 수집하고 자기차량으로 운송하여 도매시장 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개별 경기인은 운송·출하시간간 가격차, 지역간(시장간) 가격차를 획득할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유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인의 주요 출하처는 대도시 도매시장이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회사 형태의 경기인은 도매시장 내 같은 회사 소속의 전문 판매팀에 넘기거나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도매시장의 집무시장 상인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또는 초시(슈퍼마켓)와 계약을 맺어 납품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산지에서 출하처까지의 운송비는 경기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도시 대규모 슈퍼마켓(초시) 등과 계약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선별, 등급화, 포장형태, 납품형태 등 납품조건에 대해 경기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경우 경기인 회사는 일종의 대규모 벤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기업, 단체, 학교, 관공서 등 대량 수요처와 계약을 통해 직접 납품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점차 대규모 초시(슈퍼마켓)의 증가 등 대도시 소매유통환경의 빠른 변화로 경기인의 벤더 기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지에서 경기인의 가격결정 방법은 농가구입의 경우 소비자 판매가격을 선결정하고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형태, 수매가격을 결정하고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형태, 전기가격을 기준으로 현재가격을 결정하는 형태 등이 있다. 가격은 거래 당사간의 합의가격 형태이며, 수매

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인 마진율은 경기인과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결정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물량(도매와 소매), 거래선과의 유대관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가격차는 지역별로도 가격차가 발생하며, 생산자도 경기인을 선별하여 출하함에 따라 경기인간에도 가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상해시 산지 유통기구에는 산지시장이 있다. 산지시장은 산지 인근에 위치하여 주로 근교 개별 생산자들이 직접 반입하여 도소매 형태로 판매하는 재래시장이다. 산지시장은 대부분 상설시장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시장 내 상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시장 내 점포를 가지고 있는 고정상인으로 주로 도소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고정상인은 인근 농가가 반입하는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하고, 직접 산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고정상인은 산지 경기인 조직과 연결되어 대도시 소비지로 출하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는 대도시 도매시장 상인과 연결되어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고정상인은 일반적으로 인근 소비자들에게 소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장내 고정점포가 없는 무점포 상인이다. 무점포 상인은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사를 짓지 않는 지역 주민이 있다. 농민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반입하여 약간의 자릿세만 납부하고 시장 내에서 직접 소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농민의 경우 인근 산지에서 농산물을 소량으로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 내 고정점포 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소량으로 판매하는 일종의 앞자리상 또는 좌판상이다.

산지시장의 운영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대부분 행정기관이 운영주체였으나 현재 대부분 민영화로 전환되었다. 대부분의 운영주체는 몇 명의 투자자들로 구성하여 회사 형태의 시장관리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리회사는 시장 내 고정점포 상인들과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으며, 비점포 상인들의 경우 대부분 자릿세를 받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 나. 산지 상품화

산지의 상품화시설은 대부분 경기인 회사 내에 있으며, 시설 형태는 단순 수집장을 비롯하여 선별장, 배송센터 기능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산지시설은 단순 집하장 또는 선별장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별장 시설인 경우 주요 시설 및 장비에는 냉장고, 단순 포장기계 등이 대부분이며, 선별기의 경우 보급률이 매우 낮아 대부분 인력에 의한 육안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포장기나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은 대부분 없는 실정이다. 현재 경기인 회사가 산지 유통시설을 건설할 경우 상해시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건설전과 건설 후에 지급되고 있다. 상해시 농산물 소매유통환경의 급변과 정부보조 등으로 현재 선별장 중심의 산지 유통시설 설치가 경기인 조직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지상품화는 육안선별 위주의 단순·비규격 포장화와 주관적 등급화 중심의 표준규격화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부류별로 보면 일반 농산물의 경우 일부 과일류를 제외하면 채소류의 경우 대부분 선별이 안된 상태에서 무포장 벌크로 출하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과채류나 과일류의 경우 박스에 넣어 출하하고 있으나 경기인 회사에 따라 박스규격이 다르며, 포장재, 포장방법, 포장표기 등에서 비표준화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포장박스의 파열강도나 압축강도가 낮아 수송 중 감모 또는 손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박스포장이라도 도매시장이나 산지의 여건으로 팔레트에 적재하여 운송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포장박스가 출하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가격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도매시장의

가격은 근 중심의 무게단위로 결정되고 있다.

농산물브랜드화의 경우 산지의 브랜드화가 매우 초보적인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기인 회사는 개별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포장 내지 벌크상태로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 일부 산지 경기인 조직의 경우 경기인 회사의 마크를 부착하고 산지명을 표기하여 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브랜드화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기농산물의 경우 현재 국가 표준에 의해 지정된 농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규격화 및 브랜드화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산지의 안전성검사는 상해시 정부의 검역반이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해시의 산지 안전성 검사방법은 산지 농가가 직접 자기의 시료 농산물을 검역당국에 가져와서 직접 검사받는 방식, 상해시 검사당국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기인 회사가 속성 간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상해시 정부의 검역반에 의한 안전성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농가나 경기인이 신청할 경우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검사당국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경우 생산자는 검사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는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의 안전성 검사는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표본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수출상품의 안전성 검사는 원료 구매 때와 수출 상품화 때에 검사당국의 검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산지 수출회사는 대부분 민간 수출업자로 구성된 회사 형태의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출회사는 수입국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 후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거나 또는 수확기에 전문 수집팀이 산지를 순회하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규모 수출회사의 경우 수출회사가 직접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수출 상품화는 대부분 수출회사

의 선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수출회사는 대부분 자체의 상품화 장비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이 미흡하고 낙후된 선별장의 경우 선별이나 등급화가 인력·육안 선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 상품화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화 장비는 인력 또는 자동선별기, 냉장고, 포장기, 일반저장고 등이 대부분이며, 예냉고나 침단 선별기 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상해시의 주요 수출품목은 대파, 표고버섯, 상추 등이며,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다. 이 중 대파의 경우 증가추세이며, 버섯, 상추 등의 경우 수입국, 특히 일본의 검역장벽이 높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상해시의 한국에 대한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봉현구의 경우 대규모 수출회사(고용)가 1개가 있으며, 그 외 일시적, 계절적 수출회사가 상황에 따라서 출현하고 소멸되고 있다.

## 제 6 장

### 요약 및 결론

#### 1.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 및 전망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는 현재 유통주체 및 유통기구의 다양화, 유통경로의 다원화, 유통업태의 다양화, 상이한 유통조직과 각종 시장의 공존 등으로 전환기적인 복잡한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요인들은 상호 작용하여 보완과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산물 유통체계를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산지에서는 다양한 상인과 상인조직이 출현하고 있으나, 그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지유통에서 생산자의 기능이 매우 미약하며 산지수집상과 같은 다양한 중간상인의 유통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농업의 산업화경영과 같은 농민이 유통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점차 생산자의 유통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되고 있다. 산지 유통시설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그 기능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도시 소비지의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산지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있다. 특히 수확 후 처리시설이나 선별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물류기능과 산지 상품화 시설이 산지 상인조직 중심으로 확충되고 있다.

소비지의 경우 도매유통체계는 각종 도매시장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규범적인 시장질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의 경우 부적합한 입지선정, 무제한적인 건설, 취급규모의 영세성, 관리·운영의 규범화 미흡 등으로 적자경영 시장이 속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시장 재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도매시장 시설은 일부 대도시 도매시장을 제외하면 거래동 위주로 매우 단순하며, 시장 내 물류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기능은 거래 위주의 상적 기능에 머물고 있으며, 효율적인 물류기능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도매시장은 단순한 거래의 장소를 제공하는 개념에 불과하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거래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위생적이고 쾌적한 거래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가 표준화되지 못하고, 시장의 건설·운영에 대한 통일된 표준화나 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장정보의 흐름이나 교류가 지역간·시장간에 폐쇄적이어서 시장정보의 효율성이나 활용성 및 필요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매시장 재정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도매시장의 시설보완, 재배치 등과 함께 도매시장 건설·운영에 대한 규범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급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현대화된 시설로 도매유통의 선도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도매유통체계가 점진적으로 효율화되고 있다.

소매유통체계의 경우 중국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문이다. 개혁개방화와 유통시장 개방화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 유통업체의 중국시장 진출과 함께 신선농산물을 취급하는

다양한 업태의 소매기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신업태는 전통적인 집무시장이나 채시장과는 상품거래방식이나 거래상품의 특성이 매우 다르다. 선별·포장화된 농산물을 취급하고 거래방법에서 산지와 직접 계약을 통한 구매 등으로 현재 산지 및 소비지 유통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규모 초시(슈퍼마켓, 할인점 등 기타 신업태 모두 포함)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산물 물류는 수확 후 처리기술의 낙후와 관련 시설 부족으로 유통중 감모, 상품성 저하의 주요인 되고 있다. 효율적 운송수단이 부족하고, 저온운송체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효율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수확 후 저장 또는 가공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공율이나 저장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산물이 수확 후 산지에서 원형농산물 형태로 소비지로 반출되고 있어 산지의 상품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산지 상인조직들을 중심으로 저장시설과 가공시설 및 상품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소비지 소매유통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있다. 향후 이들 조직의 산지 상품화 시설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지의 상품화·브랜드화의 미흡은 아직까지 대도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산물 유통체계는 도매시장과 집무시장 주도로 유통체계가 확립되면서 다양한 시장과 유통시설이 건설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장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매유통의 경우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시장의 유통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산지상인조직, 포장센터, 도매시장, 집무시장을 축으로 하는 구조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산지조직, 시장의 유통조직(대형소매점포, 소비지 물류센터 등) 구조도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시장정보, 품

질표준체계, 검사체계 등이 빠르게 확립되고, 시장정보 서비스망도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농산물 유통은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유통체계로 변화될 전망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지역 중심의 시장망과 유통체계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현재 농산물 유통의 다양한 조직화와 경영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되고 있으며, 산지 및 소비지 유통 시설 건설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산물시장 유통질서에 대한 규범화와 불공정 및 불법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2. 상해시 농산물 유통체계 및 전망

상해시 농산물 유통체계는 현재 전통적인 유통체계와 현대화된 유통체계가 혼합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계획경제 체제하의 전통적인 유통체계가 시장경제 중심의 선진 유통체계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전환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해시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속도는 중국에서도 가장 빨리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종 상인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기구가 다양화·분화되고 있으며, 유통경로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산지유통체계는 중국의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산지수집·반출상회사인 경기인 조직이 실질적인 유통주체이며, 영세 생산자의 유통 참여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 및 상해시 정부의 채랍자 공정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기인 중심의 조직화·규모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경기인 조직의 전문적·종합적 협회 등이 구성되고 있다. 이들 경기인 조직(회사)들이 현재 산지유통 기능을 대부분 수

행하고 있으며, 유통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이 생산자조직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의 조직화와 규모화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협동조합 형태가 아닌 경기인 중심의 품목별, 업종별 협회(유통회사)에 생산자 농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지 경기인의 조직화 형태는 합작투자, 주식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업농가들이 중심이 된 생산자의 임의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농민의 유통참여는 농가와 시장의 관계를 강화하여 농민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활동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업과 상호 의존하여 결합하는 농업 산업화경영에 의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도매단계를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선진국의 경우 도매시장은 상적 기능(거래 및 가격 형성, 금융, 정보기능 등), 물류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나, 현재 상해시의 도매시장은 거래기능 외 다른 기능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도매시장의 개념과 기능이 구분되지 못하고 도·소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방법, 결제 시스템, 시장 정보, 물류기능, 조성기능 등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도매시장의 규모가 작고 도매시장 건설에 대한 건설 기준과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틀이 없어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상해시 도매시장 수는 약 330개소이며, 이 중 청과물 도매시장이 5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시장규모는 20무(4천 평)에서 400무(8만 평)까지 차이가 크다. 따라서 시장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상해시는 제15차 5개년계획에서 상해시 도매시장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선진적인 5개의 중앙도매시장을 시내에 건설하고, 산지에는 20개의 산지시장을 건설하여 도매시장과 산지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5개의 중앙도매시장은 청과물시장 3개소, 육류도매시장 1개소, 수산물도매시장 1개소이다. 도매

시장의 건설모델은 한국의 공영도매시장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상해시 당국자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신규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기존 도매시장의 정비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상해시의 경우 영세한 생산자와 소매유통기구의 영세성과 복잡성 등으로 도매시장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상해시 도매시장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상해시 농산물 유통체계는 현대화된 도매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완적으로 대형 유통기업의 물류센터 등이 보완적 유통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 단계의 경우 재래시장인 집무시장 중심에서 현대적 유통기구인 슈퍼마켓, 할인점, 대형초시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소매유통은 대형 슈퍼마켓(할인점 포함)과 현대화된 집무시장이 중심적 유통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매유통체계가 도매시장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므로 소매유통의 중심기구는 여전히 집무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형 소매점포는 보완적 유통기구로서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시사점

중국의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체계와 상해시의 농산물 유통체계의 실태, 변화 및 전망으로부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농산물 유통구조가 현대화된 선진 유통체계로 진입하는 데는 향후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 따라 발전속도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과의 발전 격차는 동부 연안 대도시의 경우 10년 내외, 내륙 지역은 15~20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중국 농

산물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국제시장에서 품질경쟁력은 어느 정도 우위에 있으나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열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시장에서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농산물과 철저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현재 유통구조 발전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과의 발전격차 기간을 중국농산물과 철저히 차별화하는 준비기간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일 수출농산물을 동일 수출시장에서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수출농산물이 중국의 수출농산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간의 품질 우위성과 높은 판매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출농산물의 국제 브랜드화나, 수출시장 소비자들의 인지도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수출농산물은 품질경쟁력 면에서 빠르게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유통체계 선진화 정도의 기간동안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중국농산물과의 철저한 차별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은 농산물 수출의 목표시장을 한국의 주 수출시장인 일본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도 주요 목표시장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둘째, 중국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소비자가 있고 소비계층별 농산물 소비성향과 구매패턴이 매우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농산물과 차별화된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중국의 특정 소비계층을 목표로 설정하여 대중국 농산물 수출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지역별, 직업별 다양한 소득계층이 존재하고, 이들 소득계층은 다양하게 분화된 각종 시장이나 유통기구에서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성향을 충족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도매시장과 대규모 슈퍼마켓에서는 고소득

층을 겨냥한 고품질 안전식품이나 유기농산물 등이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즉, 다양한 형태의 수준이 다른 소비지 유통기구가 공존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계층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은 최고급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소득계층을 위한 상품화(안전성, 편의성, 고부가가치화)가 초보적인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농산물 유통체계 하에서는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고부가가치·고품질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품목별, 부류별 유통체계와 시장구조에 대한 철저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통하여 대중국 수출방안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중국은 중앙정부와 함께 많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유통체계 및 시장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및 시설개선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상해시의 경우 2007년까지 5개의 중심도매시장 건설과 기존시장 정비, 20개의 산지시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 정비계획에서 상해시의 경우 한국의 공영도매시장 건설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에서 시설건설,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과 시장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한국의 참여 및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은 1970년대 후반 실용주의의 등장에 따라 1979년부터 개혁개방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서 중앙계획적이고 비합리적인 생산체제가 빠르게 붕괴되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적이고 비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급격히 변화시켰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현재 중국은 선진 유통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전환기적 시점에 있다. 이와 동시에 유통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민간기업과 상인이 출현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와 선진유통 이행으로의 원활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에 대해 후속 연구과제로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북한의 개방화와 함께 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농산물은 중국 농산물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한 중국의 품목별 수출상품화 및 유통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한중 FTA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도 필요하다. 중국농업과 농산물 유통에 대한 품목별, 지역별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Chinese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resources for Chinese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and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China by analyzing whole Chinese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and that of Shanghai, the most modernized city in China. The main topics of the study include changes of agricultural structures in the whole China and Shanghai before and after reform,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ing system, changes of marketing policy, process of marketing reform, and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 by marketing stages. The range of the study include the whole Chinese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and that of Shanghai.

The Chinese agricultural marketing system has been formed as a transitional and complicated one due to the diversity of marketing subjects and institutions, diversification of marketing channels, diversities in marketing businesses, different marketing institutions and coexistence of diverse markets. It is expected that Chinese agricultural marketing in the future wi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roducing field package center, wholesale markets, local retail markets and new marketing business conditions. Also, marketing related systems such as marketing information, quality standard, and inspection will be fastly established, and market information service networks as well.

There are several applications gained from this research. Firstly, we must us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velopment of agricultural marketing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as

opportunity to differentiate the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Secondly, we must establish exporting strategies to capture niche markets targeting Chinese high income class. Thirdly, we can participate in constructing Chinese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Lastly, It can be applied as a benchmarking model for North Korean opening.

Reseacher: Jeon Chang-Gon, Cho Myung-Ki, Chung Chung-Gil  
E-mail Address: cgjeon@krei.re.kr

## 참 고 문 헌

- 孫尙淸 (主編), 金暲浩(역). 1999. 『오늘의 中國市場』. 대광문화사.
- 신태용. 『중국 유통업의 구조변혁과 우리의 진출전략』. 산업연구원
- 林毅夫 외著; 韓東訓 (역), 『중국의 기적 :중국의 발전전략과 경제개혁』, 백산서당, 1996.8
-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 유통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1994
- 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1994
- 농림부 국제농업국, 『최근 중국의 주요 농업정책』, 2002.6
- 최수웅, 『중국의 유통관리제도 개혁과 유통업 개방 전망』, KIEP, 1995
- 정정길 외,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 운영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12
- 박무현, 『중국의 농수산물 생산 유통 실태와 식품 관련 산업 현황』, 한국 식품개발연구원, 1990.5
- 김진섭, 『중국농업 성장과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협중앙회조사부, 200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 유통시장, 이렇게 공략한다』, 1997
- 이일영, 『중국의 농촌개혁과 경제발전』, 서울대학교, 1996.12
- 농림부, 『중국 원예산업실태조사보고』, 2001.11
- Anderson,K. and R. Tyers, "Economic Growth and Market Liberalization in China: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Trade", 『The Developing Economies』, Vol.25, 1987
- Du, Rensheng, "The Rural Reform Objective: Establishing the Market Economy under the Socialism System", 『Chinese Rural Economy(12)』, 1992

- Yiping Huang, 『Agricultural Reform in China : Getting Institutions Ri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Garnaut, R., S. Guo and G. Ma (eds.), 『The Third Revolution in the Chinese Countrys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Lardy, N., "Prospects and Some Policy Problem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in China", 『AJAE』(68), 1986
- Lin, Justine Yifu, "Rural Reforms and Agricultural Growth in China", 『American Economic Review』(82), 1992
- \_\_\_\_\_, 『Institution, Techonology and China's Agricultural Development』, Shanghai Sanlia Bookstore and Shanghai People's Press, Shanghai, 1994
- Byrd,W.A. "Plan and Market in Chinese Economy: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3, 1989
- Chen,K., H.Wang, Y.Zhen, G.Jefferson and T.Rawski, "Productivity Change in Chinese Industry: 1953-85",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12, 1988
- Mao, Y. and P. Hare, "Chinese Experience in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Mechanism into a Planned Economy: The Role of Pricing", 『Journal of Economic Surveys』(3), 1989
- Wakashiro, N., "Rural Reform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Chian", 『The Developing Economies』(28), 1990
- 俞菊生, 小林宏至, 澤田進一, “市場經濟形成期中國上海市における青果物流通と市場再編”, 『農業市場研究』(4/2), 1996.3.
- 俞菊生, “上海市における生鮮食料品小賣流通の再編”, 『農業市場研究』(6/1), 1997.9.
- \_\_\_\_\_, “上海市蔬菜生産和市場運送體制的發展對策研究”, 『上海農業學報』(13/1), 1997

俞菊生，澤田進一，“中國における農産物流通構造に関する研究”，『農政經濟研究』(18)，1994

上海農業志編纂委員會，『上海農業志』，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1996

俞菊生，『現代中國生鮮食品流通變革』，筑波書店，東京，1997.12

上海市農委，『上海農產品現代化運輸系統可行性研究報告』，1999

俞菊生，陳春良，“都市農業新體系”，『中國農學通報』(15/3)，1999

———，“都市農業理念體系”，『農業現代化研究』(20/4)，1999

俞菊生，江洪壽『現代中國生鮮食品流通變革』，筑波書店，東京，1997.12



연구보고 R439

## 중국의 농산물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2. 12.

발 행 2002.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2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5

---

ISBN 89-89225-28-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